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제주의 근대 교육운동과
신성여학교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박 태 환

2019년 8월

제주의 근대 교육운동과 신성여학교 연구

지도교수 양 정 필

박 태 환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9년 6월

박태환의 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년 6월

A Study on the Modern Education Movement and
Shinsung Women's School in Jeju

PARK TAE-HWAN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JEONG-PIL)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2019. 8.

Department of History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 Study on the Modern Education Movement and Shinsung Women's School in Jeju

In the Modern period, the education of Jeju has undergone an extreme change. There were three types of modern schools: public schools constructed by Japanese policy, private schools established for spreading of modern education, and mission schools founded by Catholics for missionary purposes. This study focused on the Shinsung Women's School, which is the Catholic missionary school.

Before the Shinsung Women's School was built, 'Jeju Women's School' was considered to exist in the previous researches. However, through the situation of Jeju and the data of Catholic Church at that time, it revealed that there was an orphanage operated by the Saint Enfance rather than 'Jeju Women's School'. In 1901, a 'Jeju anti-Christian movement' occurred in Jeju due to the conflict between Jeju residents and Catholics. As a result, hundreds of Catholics lost their lives. Eventually, the missionary, called Lacrouts, who led the Jeju Catholic Church, had no choice but to change his missionary policies. He sought to establish a modern school in Jeju as a way of mission. At that time, establish movement for school took place, and modern schools were being established. In addition, even Protestants started to construct the schools. Lacrouts, who is inspired by the situation of the Catholic Church in Jeju and the movement to establish schools, decided to found a school. Finally, the Shinsung Women's school was built in 1909.

Because most of the Catholics were poor at this time, the operating capital of Shinsung Women's School was solely in charge of the missionaries. They had secured operating funds through various methods to supplement the lack of

capitals; support from overseas monasteries; request for aid directly, and collect church operation cost from the parish church for operating school cost. Based on these funds, they bought or repaired and expanded the school buildings. In addition, they bought educational equipment or used school payroll. With managing finance the Shinsung Women's School was able to run more stable by 1914.

According to the operating the method of the Shinsung Women's School, we can ascertain two characteristics: One is the management of infant and primary education, and the other is the education targeted at Women. Most of the schools run by the Catholic Church had a school system which is a level of elementary. The Shinsung Women's School also run the school focusing on infants and elementary education, but occasionally provided secondary education for their students. Despite having entered the modern era, women living in this period had little opportunity to learn. Moreover, there was no official education institution for women in Jeju. Since the Shinsung Women's School was established as the first female education institution in Jeju, it was possible to start female education in Jeju. Plus, it influenced the expansion of the opportunity of women for social activities and the change of perception about women.

The priest did not directly teach students, especially females. Therefore, in Shinsung Women's School as well, the priest did not instruct his students. Instead of him, two nuns who were trained to educate students at Chartres, Sisters of St. Paul de were assigned as teachers. Compared to regular teachers, they received two to three times less wages. Therefore, by employing nuns it was helpful to reduce personnel expenses, which accounted fo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nding. And there were male teachers, but only one to three people worked. They usually taught the nationalistically perspective to their students.

In the beginning, some students grew up in an orphanage. But later the

majority of students were grown up in families. As the reputation of Shinsung Women's School improved, even some students living far from the school wanted to enter. Since the Shinsung Women's School provided a dormitory, they were able to accept those students as well. However, the school closed seven years after its opening in 1916. In previous studies, the cause of the closure was regarded as the oppression of Japan. But there was a rule in the Private school rules revised in 1915, which is the basis of oppression by Japan. Because the licensed schools were allowed ten-year grace period, it wa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cause of the closure of the Shinsung Women's School. The actual reason of closure was in the empty area of Jeju. In 1914, French priests living in Korea were mobilized for World War I. The priest, Lacrouts, also left Jeju. Jeju ended up becoming an empty area without a priest. Without a priest who was in charge of the overall operation of the school, the school was not able to manage, and forced to be closed.

However, after the closure of the school, the students graduated from the Shinsung Women's School, Jeju residents and Catholics has remembered the Shinsung Women's School and tried to re-open school in their own way. Finally, the school could be reopened under the name of 'Shinsung'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s colonial rule.

목 차

I. 서론	1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1
2. 선행 연구 검토	2
3. 연구 방법 및 내용	8
II. 제주 근대학교 설립운동과 천주교 고아원	11
1. 근대학교 설립배경	11
2. 제주교안과 성영회 고아원	21
III. 신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	33
1. 신성여학교의 설립 과정	33
2. 학교 재정의 운용	42
3. 학교 운영의 성격과 구성원	60
IV. 신성여학교 폐교와 재개교 활동	74
1. 학교 폐교의 원인과 제주 지역 공소화	74
2. 제주인과 천주교의 학교 재개교 노력	82
V. 결론	91
참고 문헌	96

<표 · 그림 목차>

<표 1> 제주교구 교세 통계표	30
<표 2> 화폐 단위 및 환율	44
<표 3> 1909~1914년 신성여학교 재정 수입 및 지출	60
<표 4>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신설규정	75
<그림 1> 1902년 제주도 여학교 학생들 사진	25
<그림 2> 신성여학교 건물 사진	54
<그림 3> 유아반 수업 사진	56
<그림 4> 초급반 수업 사진	56
<그림 5> 라크루 신부 송별 사진	62
<그림 6> 풍금 연주 사진	66
<그림 7> 봉제 시간 사진	66
<그림 8> 남교사 사진	70
<그림 9> 제1회 졸업생 사진	84

I. 서론

1. 연구 목적과 필요성

교육기관은 교육의 보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근대시기 변화의 흐름 속에 새로운 교육이 요구되었고, 근대교육을 이끌어줄 교육기관으로 '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다. 대한제국은 국력 강화를 위해 교육법 제정과 학교 설립을 추진했지만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을사조약에 의해 교육권은 일본에 넘어갔고,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교육법령을 새로 제정하고 국·공립 근대학교를 전국에 설치했다. 한편, 국권 피탈이 현실화하자 민간에서는 교육을 통해 힘을 길러 국권을 회복하자는 교육계몽운동이 일어나 전국에 사립학교 설립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 제국주의 국가들과 통상조약이 체결된 후 기독교 박해가 사라지며 선교활동이 자유로워지자, 기독교 선교사들은 한국에 선교를 목적으로 종교학교를 세웠다. 이렇듯 이 시기 서로 다른 목적으로 많은 근대학교가 설립되었고, 새롭게 설립된 학교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은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같은 시기 제주의 교육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근대 이전 제주는 조선 후기 약 200여 년간 이어진 출륙금지령으로 고립된 교육환경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1820년대 출륙금지령이 해제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서 제주에도 근대학교가 세워졌다. 제주에도 육지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형태의 근대학교가 설립되었다. 먼저 일본의 교육 정책에 의한 학교 설립이 있었다. 을사조약 이후 교육을 담당하던 학부에 일본인 차관이 배치되었고, 「보통학교령」과 같은 다양한 학교령이 제정되었다. 학교령을 근거로 제주에도 근대 학제와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공립학교가 세워졌다. 한편, 민간에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깨닫고 설립한 사립학교가 있었다. 유배인과의 교류나 외부 유학 등을 통해 근대교육사상을 접한 제주 출신 지방관이나 지식인들이 제주도민과 의연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사립학교를 세웠다.

위와 같은 흐름과 함께 제주의 근대학교 설립을 이끌었던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천주교 선교사에 의한 근대교육운동이다. 제주에 부임한 라쿠르 신부는 선교의 한 방법으로 근대학교설립을 추진했고, 그 결과 제주 최초의 근대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가 세워졌다. 신성여학교는 제주교육사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우선 신성여학교는 제주에 세워진 유일한 宗敎學校¹⁾였다는 점이다. 근대시기 한국에 세워졌던 대부분의 종교학교는 개신교계 학교였다.²⁾ 그러나 이러한 흐름과는 대조적으로 제주에는 종교학교로서 천주교계 신성여학교만 세워지고 운영되었다.³⁾ 또한 신성여학교는 제주의 여성교육 인식을 바꾸었다는 점에서 제주 교육사에서 차지하는 가치가 남다르다. 아울러 천주교의 교육운동은 고아와 빈민 등 당시 사회적 약자 계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서 제주에 새로운 교육문화를 이끌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⁴⁾

이러한 특징들과 제주 근·현대사에 미친 영향 때문에 신성여학교는 비슷한 시기 설립되었던 근대학교들의 연구가 미진한 것과 달리 비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신성여학교 연구 성과에 비추어 볼 때, 그 실체가 잘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신성여학교가 제주 근대교육사에서 차지하는 가치를 고려해 볼 때,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어지는 선행 연구 검토에서 앞선 연구들에서 확인되지 못한 점들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검토

신성여학교의 선행 연구를 확인하기에 앞서 당시 제주에 설립되었던 근대학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아야 한다.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주

-
- 1) 미션스쿨(mission school)이라고도 한다. 종교단체나 종교 계열 재단에서 설립한 학교는 모두 종교학교라고 부르지만, 주로 기독교학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된다. 본고에서는 기독교계 학교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다.
 - 2) 근대시기 천주교의 교육 활동을 살펴보면, 천주교는 장기간의 박해에 따른 신자들의 빈곤과 외국인 성직자에 대한 의존경향, 그리고 지식인의 부족에 따른 재정적·인적 자원의 결여에 기인하여 개신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 활동이 빈약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노길명, 「박해기·개화기의 한국천주교회와 사회개발」, 『한국천주교창설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99쪽).
 - 3) 선교사들의 기록 중에는 개신교에서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공식 인가를 받은 학교는 아니었으며 교회 내에서 운영되던 교리학교 수준의 학교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4) 제주 천주교에서는 신성여학교 설립 이전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고아원에 대한 내용은 본문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근대학교 설립운동 흐름 속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시기에 세워진 제주 근대학교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어서 신성여학교 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에 세워진 근대학교는 크게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주 근대학교 연구는 제주 교육 당국이나 각 학교 동문회 및 개인의 제주 교육사 정리 차원의 포괄적 연구만 이루어진 상태일 뿐,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따로 구분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이를 고려하여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를 중심으로 ‘제주 근대학교’라는 하나의 주제로 선행 연구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제주 근대 교육사를 다룬 최초의 연구는 『제주교육통사』⁵⁾이다. 이 책에서는 제주의 고대 교육부터 최근세 교육⁶⁾까지 제주 교육 전체를 아우르고 있다. 또한 근대학교가 설립된 시기를 근세교육시기로 분류하고, 근대학교는 제주보통학교·의신학교·신성여학교 세 학교만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제주교육사』⁷⁾가 발간되었다. 이 책에서는 근대교육을 광복 이전의 제주교육으로 묶어 설명하였다. 앞의 『제주교육통사』가 그랬던 것처럼 근대학교는 제주보통학교·의신학교와·신성여학교만 언급했다. 또한 제주보통학교와 의신학교를 제주 근대교육의 효시로 보고 있다. 다만 앞의 책과 차이점은 제주 근대학교를 윤원구가 세운 학교와 천주교에서 세운 학교로 분류하여 설명하려는 시도를 보인 점이다. 이러한 시도는 신성여학교가 제주보통학교 및 의신학교와는 구분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풀이된다.

『제주교육행정발전사』⁸⁾에서는 처음으로 공립제주농림학교를 근대학교로 소개하였다. 그리고 근대교육제도상 공립제주농림학교부터 제주의 근대교육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이 책에서는 전근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개량서당’을 근대교육의 한 분류로 주목했다. 개량서당이 완전한 근대교육의 형태는 아니지만 근대교육의 자생적 맹아로서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濟州教育史』⁹⁾에서는 본격적으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구분하는 형태의 서술

5)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 1974.
6) 책에서는 근대를 근세, 현대를 최근세로 표현하고 있다.
7) 제주도교육위원회, 『제주교육사』, 1979.
8)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9)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던 제주목소학교를 언급했고, 공립제주보통학교·공립제주농림학교까지 공립학교로 함께 묶어 설명하였다. 또한 의신학교와 신성여학교를 사립학교로 묶어 서술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민족사학이라는 이름으로 대동보통학교·의흥학교·개성학교·의명학교·한일학교 등 여러 학교를 소개하고 있는 점이다. 이러한 구분은 사립학교와 민족사학을 설립 목적에 따라 분류한 첫 시도였다. 또한 사실이 확인되는 학교에 한하여 설립과정만이 아닌 敎士, 校舍, 학생, 교육내용 등 당시 학교의 모습을 보다 구체적으로 그릴 수 있도록 각 내용을 분류하여 설명한 점이 돋보였다.

『(근·현대)제주교육 100년사』¹⁰⁾는 앞서 발간된 책들과 달리 전근대 교육을 제외하고, 시기를 근·현대로 비정하면서 근대교육 서술 비중이 늘어났다. 제주에 근대교육 사상 전파부터 개화기 교육활동 그리고 근대학교들의 설립까지 비교적 흐름을 파악하기 쉽게 서술하였다. 근대학교를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두 분류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는데, 그 중 사립학교인 신성여학교와 공립학교인 공립제주농림학교를 비중 있게 서술하였다.

그밖에 근대학교로 설립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학교에서도 學校史 정리 차원에서 책을 발간하기도 하였다.¹¹⁾ 그러나 책에서 담고 있는 각 학교의 내용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 연구로 보기에 한계가 있다.

개인 연구는 제주 근대학교를 포괄적으로 담아낸 양진건의 저서와 논문이 유일하다.¹²⁾ 양진건은 『제주교육행정사』에서 개량서당을 자생적 근대교육의 맹아로 인식하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제주공립보통학교·제주농림학교·신성여학교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근대학교로 묶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에서는 김윤식, 박영효 등 제주에 유배 온 지식인의 교학활동이 제주 근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다. 개화기 개량서당과 교육법령을 바탕으로 세워진 제주보통학교와 공립제주농림학교, 근대여성교육기관인 신성여학교 등 세 분

1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11) 제주북초등학교총동문회,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제주대정초등학교총동문회, 『대정교100년사(上)(下)』, 2009; 표선초등학교총동문회, 『표선교100년사』, 2010.

12) 양진건, 『제주도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4, 1995;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 탐라문화연구소, 2004.

류의 학교로 나누어 제주 근대 교육을 바라보았다. 「제주도 학교설립운동」에서는 개량서당·사립학교·공립학교로 근대학교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특징적인 점은 공립학교를 각 학교급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는 것이다. 학교를 초등교육기관과 중등교육기관으로 나누어 당시 근대교육의 학제를 나타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처럼 제주 근대교육을 정리하려는 노력은 제주 교육당국과 각 학교 및 개인 차원에서 꾸준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제주 근대교육 전체를 담은 통사적 연구이기 때문에 몇 가지 아쉬운 점이 발견된다.

첫째, 개별 학교나 학교 그룹은 저마다 제주 근대교육사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위와 같은 개론적 연구에서는 그 가치를 파악하기 힘든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제주공립보통학교의 경우 제주 최초의 근대학교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다. 최초라는 것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 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으로 써 큰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최초의 근대학교로서 설립 이전과 이후에 제주교육에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 지금까지의 연구로는 알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별 학교나 학교그룹이 제주 근대교육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둘째, 제주 근대학교들의 설립 배경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있다. 제주 근대학교 설립 과정을 살펴보면 비슷한 시기에 학교들이 설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진건은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 제주의 근대학교 설립과정을 설명하며, 이를 ‘제주 근대학교 설립운동’이라고 표현했다.¹³⁾ 그러나 구체적인 제주 교육구국운동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고, 또 당시 세워진 근대학교 모두가 교육구국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학교 설립 배경을 구분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신성여학교 연구는 제주 근대학교 연구와 달리 개인 연구가 몇 편 발표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양진건의 연구이다. 양진건은 제주 개화기 교육사를 다룬 연구¹⁴⁾에서 신성여학교를 언급하며 제주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으로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천주교 선교사가 신성여학교를 세운 이유로는 선교활동에 유리하기 때문으로 보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교사가 제주도민을 愚民으로 판단하여 계몽하

13) 양진건, 앞의 논문, 2004, 서론.

14) 양진건, 앞의 논문, 1995.

려 했던 목적도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설립목적을 떠나서 신성여학교는 일제강점기 제주 독립운동과 여성사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근대교육에 일정 몫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1997년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제주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제주 선교 초기 자료들을 모아 자료집¹⁵⁾을 발간하였다. 자료집에는 근대시기 천주교 선교사들이 제주 선교과정에서 보인 교육활동과 신성여학교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양진건은 새로 드러난 자료들을 바탕으로 처음으로 신성여학교 개별 주제 연구를 발표하였다.¹⁶⁾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주장된 내용 중 하나는 1909년 설립된 신성여학교 이전에 이미 천주교에서 ‘여학교’라는 이름으로 교육시설을 운영했다는 점이다. 이 여학교는 1903년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생각되며 비형식적인 소규모 수준의 학당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천주교에 의한 여성 근대교육이 기존 사실보다 비교적 더 이른 시기에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이것으로 제주 근대교육에서 신성여학교를 포함한 천주교 선교사의 교육활동을 주목해야 할 이유가 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논문에서는 처음으로 신성여학교를 설립부터 폐교까지의 흐름으로 정리했으며, 선생·校舍·학생·교육내용까지 비교적 세분화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런 양진건의 주장과 정리는 이후 발간된 제주교육사를 다룬 책들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⁷⁾

양철호는¹⁸⁾ 제주 천주교 전과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며 신성여학교까지 다루었다. 그러나 연구의 주된 논거는 앞의 양진건 논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후 양진건은 후속 연구에서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에 대해서 일제의 정책적 탄압이 주된 원인이었음을 주장하며 추가 설명을 보탤다.¹⁹⁾ 안영후의 연구에서는 신성여학교의 성격으로 유아반과 야간반을 둔 여성교육기관으로 출발하여 중등교육기관의 역할도 수행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²⁰⁾ 하지만 이 논문 역시 앞선 양진건의 연구의

15)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1~4집』,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위원회, 1997.

16) 양진건,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제18호, 탐라문화연구소, 1997.

17) 양진건의 연구 이후 제주 교육청에서 발간한 두 권의 책 모두에서 양진건의 주장과 정리 내용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제주도교육청, 앞의책, 199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18) 양철호, 「天主教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教育에 미친 影響」,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19) 양진건, 앞의 논문, 2004.

20) 안영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濟州島) 신교육운동 考」, 『한국교육논단』 제10권 제2호, 한국교육포럼(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 2011.

논지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이처럼 신성여학교는 근대시기 제주에 세워진 근대학교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신성여학교 설립과 폐교 과정, 신성여학교 설립 이전 교육시설 운영 그리고 신성여학교의 성격과 운영방식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해결되지 않은 신성여학교에 대한 몇 가지 과제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양진건의 연구에서 처음 제기되었던 신성여학교 이전 여학교의 존재 여부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주도 여학교’ 존재 주장의 주된 근거는 신성여학교를 세운 라크루 신부의 편지 내용이었다.²¹⁾ 1903년 신부의 편지에는 ‘제주도 여학교’라는 말이 나오는 데, 이 내용을 근거로 1909년 신성여학교 설립 이전에 여학교가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편지에 나오는 여학교는 여러 정황상 학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여학교 존재 여부에 따라 제주 여성 교육이나 나아가 제주의 근대교육이 처음 실시되었던 시점에 대한 소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본 연구에서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신성여학교의 설립 배경에 대한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성여학교 설립배경에 대해 비중있게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설립배경을 파악하는 것은 학교 설립 목적이나 제주교육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을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학교설립목적과 근대학교설립 흐름까지 파악하고자 한다.

셋째, 신성여학교 재정운용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신성여학교의 운영을 학교건물, 교육내용, 교사, 학생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신성여학교 설립과 운영 그리고 폐교 등 전반에 걸쳐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재정문제이다. 신성여학교의 재정을 살펴봄으로써 신성여학교 운영과 더불어 설립과 폐교까지 각 원인과 목적을 더욱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신성여학교의 재정문제는 거의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신성여학교의 운영에서 재정운용을 비교적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넷째, 신성여학교 폐교 원인에 관한 문제이다. 기존 신성여학교 연구에서는 학교의 폐교원인을 일본의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 일본의 「사립학

2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175쪽.

교규칙」과 제주 일본 관헌의 방해 등을 들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정치적 탄압이 신성여학교 폐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모호한 점들이 있다. 오히려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은 당시 신성여학교를 운영하던 제주 천주교 선교사의 부재가 핵심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성여학교 폐교의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으로 기존 연구에서 밝힌 폐교 원인에 대해 재고하고, 새로 주목되는 원인에 대해 논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3. 연구 방법 및 내용

본 연구에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된 자료는 바로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제주에 처음 천주교가 전래한 시기부터 신성여학교와 관련된 시기까지 당시 제주에 부임했던 신부들의 서한 내용을 모아 편찬한 책이다. 당시 제주에 파견된 선교사가 겪었던 사건과 생각이 그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치가 높은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해당 자료집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자료집을 인용하고 살펴볼 때,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째, 앞뒤 맥락에 비추어 보지 않고 자료를 인용하는 것이다. 앞선 연구에서는 자료의 일부분을 앞뒤 맥락 없이 그대로 인용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로 인해 실제와 다르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내용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서 해당 자료집을 잘못 인용된 지점을 바로잡고, 자료 인용 시 앞뒤 맥락에 비추어 활용하고자 한다.

둘째, 자료집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자료의 해석에 주의하며 인용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앞서 언급했던 신성여학교 이전 ‘제주도 여학교’ 존재 여부 또한 자료집의 해석이 불러일으킨 오해 중 하나로 생각된다. 해당 자료집의 구성은 프랑스 선교사가 쓴 프랑스 원문과 함께 한국교회사연구소에서 번역한 한글 번역문이 실려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료를 인용할 때에는 한글 번역문만 인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는 프랑

스 원문과 비교하며 인용하고자 한다.

셋째, 자료집 서술의 편향성을 주의해야 한다. 이 자료집은 당대의 기록으로 천주교 선교사의 활동과 당시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자료로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하지만 천주교 측에서 발간한 자료이자 당대의 선교사의 시선이 주관적으로 반영된 자료임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처럼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은 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자료인 만큼 지나치게 맹신하여 쉽게 오류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적인 부분에 유의하며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상으로 앞서 언급한 연구 목적, 선행 연구 검토, 연구 방법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문을 구성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II장에서는 신성여학교와 비슷한 시기 설립된 제주의 근대학교 설립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제주 근대학교들의 설립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제주에 설립된 근대학교를 설립주체와 자본금의 출처를 기준으로 새롭게 구분해보려고 한다. 이에 각각 구분된 학교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학교설립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한편,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제주 천주교의 전래과정과 그 안에서 발생한 제주교안 사건을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제주교안 사건의 영향으로 변화한 천주교의 선교정책을 살펴보고, 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의 존재여부와 그 실체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다.

III장에서는 신성여학교 설립과정을 라쿠르 신부의 학교 설립 결심과 학교 설립 지원 과정으로 나누어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신성여학교의 재정 운용을 학교 운영 자금 확보 과정과 학교 관리 및 재정 지출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신성여학교의 성격을 학교의 학제와 천주교 교육 정책을 분석하여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의 교육내용과 비교할 것이다. 또한 학교 구성원인 교사와 학생들 역시 학교의 성격을 바탕으로 재구성해보고자 한다.

IV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신성여학교 폐교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정치적 탄압이 학교 폐교의 직접적 원인이었는지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달리 신성여학교 폐교의 실질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천주교 내부적 원인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성여학교 폐교 이후 신성여학교 출신인과 제주인들의 신성여학교 재개교 노력과 천주교 측 재개교 노력을 구분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 천주교 근대교육과 신성여학교의 전면적인 재검토 과정을 통해 그 실체를 다시 살펴본다면, 제주 근대 교육사에서 신성여학교가 차지하는 위상과 역사적 의미가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II. 제주 근대학교 설립운동과 천주교 고아원

1. 근대학교 설립배경

1) 학교설립운동과 제주의 교육환경 변화

근대시기 크게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전국적으로 근대학교가 설립되었다. 제주에서도 근대시기를 맞이하여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 설립운동 흐름과 제주의 교육환경 변화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주의 근대학교 설립의 시대적 배경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체제로 편입시키고 식민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을사조약 이후 교육 간섭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본은 1904년 4월 러일전쟁 전쟁 중에 이미 내부적으로 「한국보호권 확립의 건」을 결의하였다. 한국보호권 확립 계획은 일본이 한국의 외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담임하고, 한국을 지휘 감독하여 보호국²²⁾으로 만드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일본은 러일전쟁이 승리로 돌아가자 본격적으로 한국을 보호국화 하기 위해 제2차 한일협약인 을사조약을 체결하였다. 1906년에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는 통감부가 설치되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초대 통감으로 왔고, 다와라 마고이치(表孫一)가 학부 차관으로 배치되어 한국 교육의 실질적 권한이 일본에 넘어갔다. 그 후 일본은 통감부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법령들을 새롭게 제정하고 법령에 근거한 국·공립 근대학교를 세우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한편, 일본의 국권침탈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드러나자 잃어버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국권회복운동이 일어났다. 당시 국권회복운동은 교육을

22) 보호권·보호국이란 군사력을 배경으로 외교적 강제로 형성되며,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 영토를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 외교적 수사로 탄생하여 국제법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당시 국제법 고문으로 중군한 학자 有賀長雄은 세계사상의 보호국을 4가지 종류로 나누었다. 한국은 베트남·이집트와 같이 '주권은 완전히 소유하나 그것을 자유로 행사할 능력은 결여하여 주변국의 군사적 보호하에 외교적 권력행사를 위탁한 나라로, 내정에 대한 자주권은 행사할 수 있는 나라'인 제2종 보호국으로 분류했다. 제2종 보호국 관계는 반드시 조약 체결이 필수적인데, 한일간의 보호관계는 한일의정서를 전제로 을사조약으로 완성되었다고 보았다(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200쪽).

통해 민족의 실력을 향상함으로써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교육구국운동과 국권을 빼앗긴 이상 승패를 떠나 결전을 통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의병운동 두 축으로 나뉘었다. 교육구국운동의 일환으로는 계몽을 위한 신문들이 발간되었고, 교육발전을 위한 단체들이 만들어졌으며, 근대교육 보급을 위한 학교들이 세워졌다. 그중에서 학교설립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지었고, 그 결과 을사조약부터 한일강제병합 이전까지 수많은 학교가 설립되었다. 1910년 7월 1일 학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학교의 숫자는 전국의 총 2,237개교 중 2,082교에 달하였다.²³⁾

한편, 강화도 조약 이후 외국과의 통상조약이 차례로 체결되면서, 기독교 박해는 사라지고 외국인 선교사의 한국 선교활동은 자유로워졌다. 곧 기독교 선교사들은 선교활동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녔다. 이들 기독교 선교사들은 선교의 방편으로 그들의 언어와 지식·문화 등을 전파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다. 개신교에서는 1885년 북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배재학당을 시작으로, 장로교의 구세학당, 남감리교의 배재학당과 이화학당과 같은 근대학교를 설립해 나갔다. 천주교에서는 1855년 배론신학당을 시작으로 인현학당 등을 설립하며 교육을 통한 선교를 운영해 나갔다.²⁴⁾

이와 같이 전국적으로 학교 설립이 한창이던 때에 제주에도 근대학교가 설립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있었다. 본래 제주는 조선후기 출륙금지령과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새로운 지식과 교육이 전파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1820년대 출륙금지령이 해제되면서 제주 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제주 사람들이 육지로 나가 직접 교육을 받을 기회가 생겼고, 또 육지에서도 제주로 내려오는 것이 수월해졌다.²⁵⁾

이러한 교육환경의 조성으로 제주 민간에서는 근대교육사상이 전파되고 있었다.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다가 제주로 유배 오게 된 개화사상가 김윤식²⁶⁾과 박영효²⁷⁾는

23)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신교육구국운동」, 『청계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청계사학회, 1984, 74쪽.

1908년 「사립학교령」이 공포되기 전에는 민립학교 설립 시 정부의 인가나 신고가 필요 없었기 때문에 당시 설립되었던 민립학교의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위 통계는 「사립학교령」이 발표된 이후 학부의 인가를 받은 학교만을 대상으로 한 수치이므로 실제 1910년까지 설립된 민립학교의 수는 5,000여 개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김효정, 「한말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5쪽).

24) 박상길, 「근대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33-39쪽.

2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0쪽.

제주의 관리 및 지식인들과 어울리며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개화사상과 근대교육사상을 전달하였다. 또한 대정 출신 유림으로서 근대 교육의 필요성을 자각한 이재교²⁸⁾나,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다녀온 후 근대교육사상과 학교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한 한석봉²⁹⁾과 같은 지식인도 늘어나고 있었다.

한편, 제주의 선교를 위해 제주로 온 기독교인과 외국인 선교사도 있었다. 기독교인과 외국인 선교사는 제주에 선교를 목적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그들의 바탕에는 서구적 근대교육사상이 있었고, 선교 과정 속에서 근대교육이 전파되었다. 대표적으로 개신교의 조봉호와 천주교의 라쿠르 신부가 있다. 개신교 교인이었던 조봉호는 서울의 경신학교에서 근대교육사상을 수학한 뒤 제주로 돌아왔다. 조봉호는 성내교회 안에 있는 남녀소학교³⁰⁾에서 최초의 교사로 근무하였다. 또한 1907년 창립된 호남학회³¹⁾의 1909~1910년 제주지역 회원으로 제주 지역의 교육에 신경 썼다.³²⁾ 제주

-
- 26) 김윤식은 갑오개혁에 참여하며 외무대신에 임명되었지만, 아관파천과 동시에 면직되고 을미사변에 연루되어 탄핵을 받아 종신유배형으로 제주로 왔다. 김윤식은 제주에 머물며 굴원이라는 시회 활동을 주도했다. 굴원에는 유배인 7인 및 육지부 지식인 5인을 비롯하여 제주 지식인 11명이 참여했다. 유배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한 시문을 짓는 모임이었으나, 당대 제주에 있는 지식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며 지식을 나누는 장이 되었다. 특히 그들 중 제주 지식인들은 이후 제주 사회교육변화에 일임하였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1쪽).
- 27) 박영효는 박규수·오경석·유홍기·이동인 등 북학파의 영향을 받아 성장했으며, 이후 김옥균·서광범 등과 친교를 맺으며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인물이었다. 수신사 자격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근대교육사상을 받아들였다. 박영효는 1888년에 「개화에 대한 상소」에서 위로 세자 전하로부터 아래로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또 6세 이상의 남녀는 모두 취학시킬 것을 주장하면서 남녀평등과 신분의 평등이라는 사상에 기초한 국민개학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다. 갑신정변 실패 이후에는 일본으로 건너가 동경에 친린의숙이라는 사립학교를 세우고 유학생 교육에 힘썼다. 조선에 돌아왔으나 대신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로 유배 왔다. 박영효는 당대의 정치적 비중이 컸던 인물이었기에 제주도에서 개화 교학 활동이 수월했고, 이를 따르던 제주 지식인들이 많았다. 한편 박영효는 제주 근대 학교 설립에도 관심이 많았는데, 의신학교 설립과 신성여학교 설립 등 제주 근대 학교 설립에 도움을 주었다. 또 개신교의 최초 교회인 성내교회 건립에도 도움을 주는 등 제주 근대 교육·문화 보급에 힘썼다. 이밖에도 박영효는 원예 작물, 과수 재배, 식생활 개선 등 농촌 계몽 운동에도 이바지 하는 등 제주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근대화에 관심이 높았다(김찬흡,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228-229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2-33쪽).
- 28) 이재교는 한시 작가이자 교학을 통한 구국 활동에 관심이 깊었다. 제주에 학교설립운동이 일어나자 1909년 중문에 개성학교를 개설하여 학교장을 맡았다. 그러나 재래식 한문 서당 교육에 젖은 인사들의 비협조와 학동들의 근대교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이내 문을 닫았다. 이후 1912년 대정 공립보통학교의 학무위원을 지내기도 했다(김찬흡, 앞의 책, 2000, 345쪽).
- 29) 한석봉은 개화사상가이자 교육자이다. 일찍이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온 후 개화사상을 몸소 느끼고 돌아왔다. 이후 고향인 함덕에 청년들을 위해 학교를 설립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근대 교육 이해부족으로 좌절했다. 이후 1906년 조천리 연복정을 교실하는 의흥학교를 주민들의 의연금을 받아 개설하였다(김찬흡, 앞의 책, 2000, 411-412쪽).
- 30) 천주교 타케 신부의 서한을 보면 교회 내 학교이지만 교인이 아닌 학생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식학교로 등록된 학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8년 9월 24일, 155쪽).
- 31) 호남학회는 서울에서 자강운동, 계몽운동에 종사하고 있던 인사들이 출신 지역별로 신학문의 수용, 신교육의 실시 등을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천주교 선교사 라쿠르 신부 역시 근대학교 설립운동 이전에 제주에 부임하여 근대교육을 통한 선교를 고민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제주에 근대 교육사상이 민간에 전파되면서 근대교육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갔으며, 근대학교 설립의 바탕이 마련되고 있었다.

2) 일본의 對韓교육정책과 공립학교의 설립³³⁾

통감부는 기존에 조선 정부 의도로 제정되었던 「소학교령」을 폐지하고, 일본의 對韓교육방침대로 「보통학교령」을 비롯한 여러 학교령을 제정하여 중앙과 각 지방에 근대교육을 위한 국·공립학교를 만들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제정된 교육령은 일종의 우민화 교육과 다름이 없었다. 일본이 학교령을 제정하며 내세운 대한교육정책 방향은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이었다.³⁴⁾ 대한제국이 제정한 「소학교령」 하에서 소학교의 수업 연한은 보통과 3년에 고등과 2~3년이었지만, 일본이 제정한 「보통학교령」 하에서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은 4년제로 단축되었다. 중등학교의 경우도 심상과 4년에 고등과 3년제로 운영되던 것을 4년제의 고등학교로 바꾸었다. 일본에서 운영되던 15년 학제와 비교하면, 한국은 8년 학제로 일본의 절반에 불과한 학제로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제 축소 정책은 한국인에게 교육의 기회를 빼앗으려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³⁵⁾ 제주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정책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공립학교가 세워졌는데, 그 학교가 바로 제주공립보통학교와 공립제주농림학교이다.

제주공립보통학교 설립 이전 조선정부의 근대법령을 토대로 설립되었던 제주목

32)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3, 196~197쪽.

33) 본고에서는 제주에 세워진 근대학교 형태를 공립학교, 공립형 사립학교, 사립학교 그리고 종교학교로 나누었다. 학교 구분의 기준은 설립주체와 설립자금이 어떻게 구성되어 학교가 설립되었는가를 놓고 분류하였다. 국가 소속 관리가 주체가 되어 공적 자본으로 지방에 학교를 세운 경우 공립학교로 구분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 소속 관리가 주체가 되지만 민간 자본을 모아 세운 학교를 공립형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또한 민간이 주체가 되어 민간 자본을 모아 세운 학교를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이와 달리 종교 주체가 종교자본 및 민간자본을 모아 설립한 학교를 종교학교로 구분한다.

34) 이 제도는 일본 내 또는 한국에 있는 일본인을 위한 교육제도, 즉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 전문학교 4년, 대학 6년에 비하면, 전자의 교육연한이 11년 내지 12년임에 반하여, 후자는 15년 내지 17년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보통교육기관들을 위한 법규가 교육령이 반포된 같은 해에 공포되었음에 반하여, 전문교육기관에 관한 법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1915년에 가서야 제정되었고, 대학교육에 관하여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곧 그들이 내세운 시세와 민도에 맞는 교육제도이었던 것이다(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209-210쪽).

35)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61-62쪽.

공립소학교가 있었다. 근대학교를 표방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통 교육 형태로 학교가 운영된 것으로 보이며, 그마저도 꾸준히 운영되었는지 확실치 않다.³⁶⁾ 따라서 근대적 법령과 교육내용을 동시에 만족하는 실질적인 제주 최초의 근대공립학교는 제주공립보통학교로 생각된다. 공립보통학교가 설치된 곳은 기존 공립소학교가 설립된 지역이었다.³⁷⁾ 따라서 제주공립보통학교도 제주목 공립소학교를 없애고 새로 설립되었다. 당시 제주 군수였던 윤원구가 제주 군수 겸 제주공립보통학교 교장직을 겸임하였다. 통감부가 시정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일본은행에서 도입한 차관 5백만 원 가운데 8천원을 학부에서 할애 받아 제주목 객사였던 瀛州館을 개축하여 1907년 1월 설립하였다. 학생 모집은 관덕정에서 백일장을 열어 합격자 중에 연소자를 뽑아 입학시켰다.³⁸⁾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 근대교육 시설의 학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미루어 한 가지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제주공립보통학교는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근대교육의 기본인 보통교육 취지와는 다른 학교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한문 詩作을 통한 합격자를 학교에 입학시킨 것은 이미 전근대 교육을 받은 사람 즉, 일정

36) 조선 정부는 1894년에 이르러 갑오개혁을 단행하였는데, 이 개혁에서 이미 기존 전통교육에서 근대교육으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학계에서는 갑오개혁 당시 교육개혁은 일본 세력에 의존한 개혁이라는 주장(박종근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 변혁과 민족운동』(한국 근대사회의 형성과 전개2), 청아출판사, 1983, 311-324쪽)과, 단순히 일본 제도를 모방한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안기성, 『한국근대교육법제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이 서로 대립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의존도 여부를 떠나서 당시 조정에서는 갑오개혁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文教행정을 담당해 오던 예조 대신에 學務衙門이 새로 들어섰다. 이어 1895년 2월에는 전 국민에게 「教育立國詔書」를 반포하였다.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정부는 각종 관립학교를 세웠다. 개혁안에 있는 「소학교령」에 따르면 “각 부군은 그 관내에 취학연령 아동을 취학시킬 수 있는 공립소학교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제시하며 만 8세에서 15세까지를 취학연령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신학제에 의해 설립된 학교의 수는 많지 않았고, 학생의 수효도 마찬가지였다. 대부분 한 학교당 학급은 하나뿐이었으며, 교사도 한 명 이었고, 학생은 많아봐야 50명 적으면 10명이었다. 그밖에 신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교원의 자질문제 같은 요인들도 관학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형식만이 신식학교였고, 그 대부분 학교는 한문습독에 전력하는 서당과 별로 다름이 없고 교재도 부족했다. 제주에서도 「소학교령」에 의해 따라 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제주목 공립소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1906년 「소학교령」이 폐지되고 「보통학교령」이 발표되기까지 10여 년 동안 유지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목 공립소학교는 정부 측 교육령 시행 기록과 인사이동기록으로만 추정된 것으로 아직 실체가 모호하다(이성은 외, 「소학교령기(1895-1905) 관·공립소학교교육의 성격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연구』 17집 1호, 2004, 265-268쪽; 허경, 「개화기 초등학교 설립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29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4-36쪽).

37) 통감부는 1907년 4월 1일 자로 개성, 안성, 홍주, 경주, 동래, 목포, 강릉, 원산, 북청, 군산, 마산, 진남포 등의 보통학교에 한국인 교원을 임명하고 교장을 겸임토록 했다. 하지만 인천, 청주, 강경, 남원, 나주, 성주, 상주, 울산, 황주, 정주, 의주, 원주, 길주, 회령과 제주 등의 보통학교에는 교원을 임명하지 못해 군수에게 학교장직을 겸임하도록 했다(이계형, 앞의 논문, 2007, 77쪽).

38) 양진건, 앞의 논문, 1995, 72-73쪽.

수준의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을 학생으로 선발한 것이다. 물론 당시에 공립학교에 제주의 학생들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었지만, 이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입학자를 한정하면서 배울 수 있는 선택의 기회는 소수에게만 돌아갔음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의 보통학교들도 다르지 않았음을 생각할 때, 공립학교를 설립한 일본의 의도가 많은 수의 도민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게 하는 데 있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라고 생각된다.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제주의 초등교육을 담당했다면 중등교육을 담당할 학교는 공립제주농림학교였다. 공립제주농림학교 설립은 특이한 사례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당시 통감부는 중등교육기관의 설립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이 한국에 취하려던 교육은 간이와 실용을 기본으로 했기 때문에 통감부는 보통학교를 중시 여겼다. 따라서 실제로 극히 실용적인 고등교육을 실시할 학교를 몇 개 설립했을 뿐이었다.

당시 한국인은 한국의 부강 개발을 도모하려면 교육을 보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고, 초등교육을 마친 자는 누구나 고등과 학교에 입학하려는 자가 심히 많았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은 다년 정치의 부패와 인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민력은 고갈되고 국운은 부진하며, 국가와 백성이 더불어 곤비의 극에 빠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학과가 많은 것과 정도가 높은 것을 희망하여, 그들이 창도하는 부국 개발이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학부는 고등교육기관, 즉 현재의 중등교육기관으로 하여금 다시 상급학교에로 올라가는 예비단계가 되게 하는 폐단에 빠지지 않고, 사실상 종결의 교육기관이 되게 하는 방침을 취한 것이다.³⁹⁾

교육차관의 말을 좋게 해석하자면 당시의 한국의 현실에 비추어 아직 고등교육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보통교육만을 강조함으로써 한국인에 대한 우민정책 일단을 보이는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고수한 일본도 중요하게 생각한 중등교육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농업교육이었다. 당시 일본은 일본 자본과 농민이 주체가 되어 일본의 메

39) 다카하시 하마키치(高橋濱吉), 「조선교육사고」, 제국지방행정학회 조선본부, 1927.

이지 농법을 이식 보급하여 한국농업을 장악하려는 목적하에 한국농업개발론을 내세우며 이에 대한 타당성과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었다.⁴⁰⁾ 일본이 이렇게 한국 농업 개발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메이지 유신 이후 인구 및 식량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도시로 사람이 몰려들면서 식량 부족 현상이 만성화되었고, 무엇보다 면방직업에 필요한 원면과 製絲業의 원료인 누에고치의 원활한 공급이 절실하였다. 또한 통감부의 식민정책은 일반적으로 식량 및 원료의 침탈과 상품시장화를 위해 식민지경제체제를 편성하는 동시에 일본 자본의 위약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본원적 축적을 강화하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통감부는 한국의 농산물 수탈에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농업학교가 중시되었다. 당시 세워진 실업학교 15개교 가운데 농업학교가 10개교를 차지할 정도였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06년 9월에는 「농림학교규칙」이 공포되었다. 1909년 6월에는 「농림학교규칙」을 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업학교 설립을 추진하였다. 먼저 통감부는 3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 지방에 2년 과정의 농업학교를 설립하여 농림과 측량을 가르치고자 하였다. 농림과 측량 과목은 이후 계획하고 있던 토지조사사업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토지조사사업에는 측량기술자뿐만 아니라 농업 지식과 재능을 갖춰 토지의 비척, 관개수로 등을 감정 식별할 줄 알고, 토지의 등급을 정할 줄 아는 기능인의 필요에 따라 실업학교에 측량과를 가설토록 하였다. 즉 통감부는 농업학교를 통해 한국 농업을 개량시키는 것과 함께 졸업생을 토지조사사업에 이용하고자 한 것이다.⁴¹⁾

이런 일본의 의도에 따라 공립제주농림학교는 제주도 농업 교육을 위한다는 명분하에 1909년 12월 인가를 받아 1910년 5월 개교하였다. 농림학교 학생은 당시 제주의 중등교육기관이었던 의신학교 학생들로 채워졌다. 의신학교는 제주도민들의 의연금을 받아 세운 사립학교였다. 그러나 설립 주체가 제주 군수인 윤원구였고, 이후로도 정부의 직접적인 간섭이 있던 학교였기 때문에 정부의 뜻대로 학교가 폐교한 것이다. 의신학교가 문을 닫자 일부 재학생들은 새로운 중등학교였던 공립제주농림학교에 편입되었다.⁴²⁾

40) 이계형, 앞의 논문, 2007, 95-96쪽.

41) 이계형, 앞의 논문, 2007, 229-238쪽.

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58쪽.

3) 학교설립운동과 사립학교의 설립

이 시기 제주에는 사립학교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립학교의 역할을 했던 공립형 사립학교가 있었다. 이러한 학교들은 제주, 대정, 정의 지역의 군수들이 각 지역에 근대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의연금을 모아 학교를 세우고, 그들 자신이 학교장을 맡아 운영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각각 제주에 의신학교, 정의에 의명학교, 대정에 한일학교가 설립되었다.

제주 의신학교 설립을 주도한 인물은 제주 군수 윤원구였다. 그는 일본의 교육령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제주공립보통학교를 세웠지만, 중등학교 따로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제주의 중등교육 실현은 묘연한 상태였다. 하지만 중등교육의 필요성을 느낀 윤원구는 제주도민들의 의연금을 받아 사립학교형태로 중등학교인 의신학교를 세웠다.

이로써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여 더욱 힘썼으나 드는 경비가 커서 일이 쉽지 않았다. …그런데 다행히 신사 및 유지들의 지원 의연자가 1,345원을 모아 놓았다. 유림들도 스스로 분발하여 유명 통적자는 60전씩 연의할 뜻을 보였다. 이렇게 되자 5개 면의 면장과 각 이장 및 주민들이 관덕정에 일제히 모여 호수에 따라 그 학비를 계산, 앞서 유림들의 뜻과 동일하게 1호당 60전씩 분담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기본금을 마련, 원금은 각기 해, 호에 두고 매호 1년 이자조 11전 4리만을 춘추로 분납하여 비용으로 충당하기로 의논하여 약정하고 일금 2,303원이 되었다. 학교 교실은 신축할 수 없는 고로 경신재의 건물을 사용하기로 작정하고 또 교실 한 채를 건축하려 할 즈음에 다행이도 유령 유준하가 7개 면의 유생들의 동의로 일금 7백원을 별도로 마련케 되어 교실 신축비로 보태었다. 본도 인사들의 의연금으로 경신재 기지에 31칸의 학사를 다시 신축하였다.⁴³⁾

이렇듯 도민들과 지역유지 그리고 전통 유림들까지 근대 학교 설립에 참여함으로써 의신학교가 세워질 수 있었다. 제주공립보통학교 설립보다 1달 이른 1907년 4월 굴림서원이 있던 자리에 제주의신학교를 세우고, 학생 모집을 위하여 관덕정에서 백일장을 열어 선발된 인원 중에 연장자를 제주 의신학교에, 연소자를 제주공립보

43) 윤원구, 「사립 제주의신학교비 기본금 연의문」, 1906.

통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으로 학생을 충원하였다.⁴⁴⁾ 그러나 중등교육을 향한 제주인들의 의지가 담겨 설립된 의신학교는 일본의 실업학교 설립 정책에 의해 1909년 졸업생을 남기지 못한 채 폐교되었다. 이후 의신학교 재학생들은 제주공립농림학교로 편입되었다.

1907년 제주군수 윤원구 주도로 제주공립보통학교와 제주의신학교가 제주군에 잇달아 세워지자 이에 자극을 받은 정의군수와 대정군수 또한 각 지역에 근대학교를 설립하고자 하였다. 결국 정의군수 장용건이 성읍리 충신당에 의명학교를 설립하였고, 대정군수 김종하는 대정군 안성리 향사당에 한일학교를 개설하였다. 장용건과 김종하는 이미 김윤식·박영효와 어울리며 영향을 받아 근대교육에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세운 의명학교와 한일학교는 보통학교 성격의 초등교육 기관이었다. 정의군과 대정군은 정부의 지원금에서 제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공립보통학교를 세울 수 없었고, 이에 제주 의신학교와 같이 군수 주도로 주민들의 의연금을 받아 공립형 사립학교를 세운 것이었다. 의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장용건과 김종하 군수가 각각 학교장을 겸임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일본이 공립학교를 확대해 감에 따라 의명학교는 1909년 공립 정의보통학교로 한일학교는 1911년 공립 대정보통학교로 각각 개편되었다.⁴⁵⁾ 이로 인해 비록 공립형이었지만 제주민 스스로의 근대교육 의지가 담겨있던 공립형 사립학교들은 모두 일본의 지도를 받는 공립학교로 전환되었다.

공립형 사립학교가 아닌 순수 사립학교도 제주에 설립되었다. 제주에 사립학교를 설립했던 주체는 세 부류가 있었다. 개화사상을 받아들인 제주 지식인, 척화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제주 유림 그리고 천주교 선교사이다. 이들이 학교를 설립한 이유는 각각 달랐으나 제주 근대 사립학교설립에 한 축을 담당하였다.

먼저 사립학교를 설립한 제주 지식인에는 대표적으로 한석봉과 이재교가 있다. 한석봉은 신사유람단 일원으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온 개화사상가였다. 제주에 돌아온 한석봉은 제주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제주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1906년 조천리 연북정에 조천리민들의 의연금을 모아 근대사립학교인 의흥학교를 설립하였다. 그는 근대교육을 위해 일본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일본어 교육을 위해 추자

4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41-46쪽.

4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46쪽.

도에서 일본어를 가르치던 다케다를 초빙하여 교사로 채용하였고, 어업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 일본 어상인 아라가와를 초빙하여 일본어와 어업기술을 전하기도 하였다. 의흥학교는 오래 존속하지 못했지만 학교 출신 고순흙, 김명식, 김문준,⁴⁶⁾ 김병주, 김형식, 홍두표 등이 이후 교육운동과 국권회복운동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아 학교설립 목적과 의지는 충분히 이어졌던 것으로 생각된다.⁴⁷⁾

1908년에는 대정군 중문리 못동산에 사립 개성학교가 설립되었다. 사립 개성학교는 대정 출신 유림 이재교가 설립한 학교이다. 이재교는 학교장으로 재직하며 이기항을 교사로 초빙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근대교육에 반감을 가진 지역인사들의 비협조와 주민들의 신식교육 이해 부족으로 결국 학교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재교가 제주 근대교육에서 가지는 특이점은 한학을 배운 유림이었지만, 개화사상가와 같이 근대교육을 필요성을 느끼고 전파하려고 했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개성학교 설립만이 아니라, 개성학교가 폐교한 이후 대정향교 전교 도훈장으로 있으면서 대정보통학교를 위해 소유 송림 20여만 평을 연습림으로 쓰도록 기증하였다. 이후에는 대정보통학교 학무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하였다. 또한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에 젊은 인재 10명을 선발하여 유학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경성제국대학 설치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직인 조선민립대학 기성회 제주도지부에서, 그와 같은 대정 출신인 허안식과 같은 민족주의 학자들과 활동하였다.⁴⁸⁾

제주 학교 설립 운동에는 제주의 유림들도 참여했다. 면암 최익현의 위정척사사상의 영향을 받은 조천 유림들은 일본에 맞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다. 그 와중에 시대변화를 지각한 제주도 전통 유림 대표들이 제주 향교 부설로 대동보통학교를 세웠다. 교장 김기수, 교감 겸 강사는 김상수, 강사는 진찬엽과 정대집이 있었다. 영평리 출신 김기수는 조선태의 집의계 12동지 가운데 한 사람으로 향리에 보성의숙을 개설하여 숙장으로 활동하고 광복이 되자 제주 향교를 기반으로 제주중학원 개설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사립 대동보통학교가 주목되는 이유는 한학을 위주로 했던 전통 유림들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교과목을 편성했고, 제주향교의 부설로 학

46) 김문준은 조천 출신으로 제주에서 의흥학교, 의신학교를 거쳐 교육을 받았으며, 육지의 수원농림학교를 졸업하였다. 이후 제주로 돌아와 정의공립보통학교, 사립화북학교, 신성사숙 등에서 교사로 재직하며 제주의 근대교육운동에 앞장섰다(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40쪽.

48) 김찬흙, 앞의 책, 2000, 345쪽.

교 체제가 이루어진 점이다. 특히 김기수가 맹약을 맺었던 집의계는 개화사상과 대척점에 있던 위정척사사상으로서 사립 대동보통학교의 존재를 통해 위정척사사상이 제주도 개화기 교육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사례로 그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될 만하다.⁴⁹⁾

그밖에 천주교 선교사가 제주에 근대사립학교를 설립하였다. 천주교 선교사의 교육활동과 그 영향으로 세워진 학교는 같은 시기 세워진 제주의 여타 근대학교와는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 근대학교설립운동 중에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어지는 본고에서는 제주에 근대교육을 펼친 천주교의 전래과정과 교학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교안과 성영회 고아원

1) 제주의 천주교 전래와 濟州教案

한국에 처음 천주교가 소개되었던 것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본격적인 전래는 1784년 한국인 최초로 세례를 받은 이승훈이 한국에 돌아와 포교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 하나의 학문으로 들어온 천주교는 종교적으로 유교사상과 대척되어 100여 년간 박해를 받아왔다. 조일수호통상조약을 계기로 나라의 문호가 개방되고, 1884년 프랑스와의 통상조약을 맺으며 비로소 천주교가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천주교는 전국에 선교사를 파견하였고, 제주에도 천주교 선교사가 보내졌다.

제주에는 1899년 4월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의 페네 신부와 한국인 김원영 신부가 제주도 최초의 선교사로 임명되어 정식 파견되었다.⁵⁰⁾ 그러나 당시 제주에는 천주교인이 모여 사는 교민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고, 파견된 선교사들 역시 제주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 제주에서의 선교는 쉽지 않았다. 특히 선교사들은 제주에서의 선교가 토착신앙과 유교제례 등 이단 문화가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려워하였다.⁵¹⁾ 결국 페네 신부는 제주에서의 布教 한계를 느끼고 1900년 2월에 제주를 떠났

4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46-47쪽.

50) 뮌텔, 『뮌텔 주교 일기 2 : 1896-190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381쪽.

다.⁵²⁾

페네 신부의 뒤를 이어 1900년 6월에는 라쿠르 신부가 제주에 파견되었다. 제주에 남아 있던 김원영 신부는 정의현 한논 본당⁵³⁾이 새로 설립되면서 그곳에 부임하였고, 제주 본당은 라쿠르 신부가 담당하였다. 라쿠르 신부가 제주에 부임하고부터 급속도로 천주교의 신자 수가 크게 늘어나며 교세가 확장되었다. 부임하고 두 달 만에 성당을 증축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였으며, 부임 이후 2년 만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영세를 받고 700명이 넘는 예비신자들이 새로 교회에 들어왔다.⁵⁴⁾ 제주 천주교가 급격하게 성장한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되는 것이 천주교의 '외교적 영향력'이다.

당시 조선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는 모두 파리외방전교회 출신 선교사들이었다. 프랑스인으로 구성된 선교사들 뒤에는 강대국 프랑스가 있었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조불조약 이후 護照⁵⁵⁾를 발급받아 전국을 자유롭게 다니며 조선인에게 선교할 수 있었다. 또한 프랑스 국민으로서 보호를 받으며 치외법권을 보장받았다.⁵⁶⁾ 제주에서 천주교에 입교한 교인 중 상당수의 인원은 순수한 종교적 이유로 입교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가 지닌 권한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죄를 용서 받고 이익을 취하려고 입교했던 자들이 있었다.

천주교에 입교한 교인들의 면면을 보면 제주에 유배 온 죄인, 제주 지역 향리, 그리고 대다수는 경제적 빈민층이었다. 먼저 유배인이나 향리들은 제주의 지배층이 아닌 비주류 세력이었다. 이들은 천주교에 의탁하여 자신의 지위를 도모하거나 신변을 보호 받기 위해 입교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제 향리들은 제주에 파견되었던

51) 페네 신부는 서한에서 제주의 혼인 문제 등을 이단 문화로 보고, 토착문화로 인해 선교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37-45쪽). 김원영 신부는 제주의 유교제례와 무속신앙을 이단으로 보고 이론적으로 호교하기 위해 『수신영약』이라는 책을 썼다. 책에서 김원영 신부는 제주의 조상 제사 문화, 마을의 굿 및 제사 문화, 뱀 신앙 등을 이단으로 보고 이런 문화들이 강해 전교가 어려운 것으로 보았다(박찬식,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 -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운동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72-83쪽).

52) 박찬식, 앞의 논문, 2001, 69-70쪽.

53) 1900년 6월 12일 정의현에 한논 본당이 설립되었다. 지금 서귀포시 호근동.

54) 박찬식,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 근현대사 연구』 4,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69쪽.

55) 호조, 행장(行狀)이라고도 한다. 조선 후기 여행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발급해주던 일종의 여행 증명서이다. 외국인들의 신청을 받아 통리기무아문에서 발급하였다. 사용기간은 보통 6개월로 여행자의 성명, 신분, 여행지 등이 명시되어있었다. 호조의 발급료는 15냥으로 이것을 지니면 개항지가 아닌 곳에도 여행할 수가 있었으므로 당시 조선에 있던 프랑스 선교사들은 이를 이용하여 전국각지를 돌며 선교활동을 하였다.

56)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교구연보 1』(1878-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103쪽.

봉세관을 도와서 새로운 수세담당세력으로 등장하기도 하였다. 한편, 교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제적 빈민층들 중에서는 천주교를 지방관들의 수탈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보호처로 인식한 사람들의 입교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⁵⁷⁾

대한제국이 선포되고 새로운 조세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의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봉세관이라는 직책이 만들어졌다. 제주의 봉세관으로는 강봉헌이 부임하였는데, 세금에 관한 전권을 행사하며, 전세의 신설, 잡세의 징수, 지대의 인상 등 징세가 가능한 거의 모든 토지와 산물을 조사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런 봉세관의 징수 작업에 소위 불순한 의도로 입교한 천주교인이 참여하며 천주교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져갔다.⁵⁸⁾ 한편, 토착지배층 및 제주도민들과의 마찰도 있었다. 토착지배층과 교민들은 월권 문제와 징세 문제로 인해 마을 주도권을 가지고 대립했다. 또한 제주도민들과 천주교 교인들은 신당 파괴 문제, 궂 방해 행동, 산송 문제 등 제주의 풍습과 문화의 차이로 계속하여 대립각을 이루었다.⁵⁹⁾

계속되는 제주도민과 교인들 사이의 마찰 상황 속에 대정군수 채구석과 유림 오대현은 '상무사'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봉세관과 교회에 대항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천주교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고, 결국 유혈사태로 번졌다. 유혈사태로 이어지자 이재수를 비롯한 도민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입수한 무기로 무장하고 봉기하였다. 이에 맞서 교인들도 무장을 했고, 전투 끝에 도민들이 제주성을 점령하였다. 이후 프랑스 군함과 정부군의 파견으로 사건이 일단락되었다. 결과적으로 제주도민을 비롯한 다수의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었고 濟州教案⁶⁰⁾이라는 이름으로 제주 역사에 남게 되었다.

2) 제주도 여학교의 실체와 성영회 고아원

제주교안으로 인해 수백 명의 천주교인이 목숨을 잃었다.⁶¹⁾ 이는 당시 제주도에 있던 대부분의 교인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제주 천주교를 이끌고 있

57) 박찬식, 앞의 논문, 1996, 75-80쪽.

58) 방상근, 「한말 천주교와 제주교안」, 『교회사연구』 1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70-71쪽.

59) 박찬식, 앞의 논문, 2001, 83-96쪽.

60) 본고에서 제주교안으로 표기한 이 사건은 흔히 이재수의 난이라고 불리며, 辛丑民亂 혹은 辛丑教案 등으로도 불린다.

61) 라쿠르 신부가 서한에서 밝힌 제주교안 사건에서 목숨을 잃은 교인의 수는 700~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뮌헨주교의 보고서에 따르면 500~600명 정도의 교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에 유배 중이던 김윤식은 『속음청사』에서 500~600명의 교인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았다.

던 라쿠르 신부와 교인들은 그야말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면 제주교안 이후 라쿠르 신부가 처한 당시 제주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신자들이 마을에서 종교 생활을 하기는 아직 불가능합니다.⁶²⁾

희망이 되살아나고 있지만 활기는 예전만 못하다... 아직 천주교인들이 학살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도 한다.⁶³⁾

정의군의 지역에서는 우리 종교의 폐지를 요구하는 等狀을 준비했었지만...⁶⁴⁾

이처럼 제주교안 이후 제주의 상황은 선교활동을 차치하고 남아 있는 교인과 신부들이 종교 생활조차 행하기 힘든 형편이었다. 이렇듯 제주교안으로 인한 상처는 도민들의 인식에 악영향을 미쳤고, 도내 천주교에 대한 반감 인식은 1903년까지도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주교안 이후 사건 수습에 정신없을 상황 속에서도 라쿠르 신부가 여학교를 운영해왔다는 주장이 있다. 양진건의 연구에서 처음 언급된 이후 신성여학교 관련 연구에서 꾸준히 제시되고 있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신성여학교 설립 이전 ‘제주도 여학교’가 존재했다는 주장이다.⁶⁵⁾ 이러한 주장이 제기된 배경에는 새로운 자료의 발견이 있었다. 1997년 천주교 제주교구에서는 그동안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천주교 측 자료들을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편찬하였다. 이 책에는 제주에 처음 선교사가 도착한 시기부터 일제강점기 초반에 해당하는 시기의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다. 제주도 선교사와 조선 교구 주교가 주고받은 서한이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다. 새로운 자료가 대량으로 공개되면서 신성여학교와 천주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다.

6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15쪽.

6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53쪽.

64)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55쪽.

65) 양진건은 연구에서 천주교 제주교구에서 발간한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의 내용을 근거로 제주도 여학교가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이후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집이나 이후 논문에서도 빠짐없이 인용되고 있다(양진건, 앞의 논문, 1997).

자료집에는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라쿠르 신부의 서한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한 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등장한다.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 사직을 하고 제 집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⁶⁶⁾

양진건은 ‘제주도 여학교’가 정확하게 어떤 학교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선교를 목적으로 세운 비공식적인 소규모 학당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제주도 여학교 운영의 또 하나의 근거로 신성여학교 사진을 들었다. 『제주 복음 전례 100년사 자료집』을 보면, ‘라쿠르 신부가 설립한 신성여학교 1902년경 모습’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실려 있다.⁶⁷⁾



<그림 1> 1902년 제주도 여학교 학생들 사진⁶⁸⁾

이 사진에는 성인으로 보이는 여성 한 명과 어린 여자아이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집에서는 사진의 제목을 신성여학교의 1902년경 모습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에 라쿠르 신부 대신 성인 여성 한명과 학생들이 같이 있는 모습이 찍혀 있다. 그러나 신성여학교는 1909년 세워졌으므로 사진은 신성여학교 학생

66)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3년 10월 2일, 175쪽.

67)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4쪽.

68) 자료집에 있는 사진과 동일한 사진이지만 자료집 사진의 화질이 좋지 않아 『사진으로 본 신성 100년』에 실려 있는 사진을 인용했다(신성학원총동문회, 『사진으로 본 신성100년』, 시민당인쇄사, 2009, 21쪽).

들이 아닌 제주도 여학교 학생들의 사진일 것으로 본 것이다. 또한 사진에 등장하는 성인 여성이 앞서 언급한 제주도 여학교 여교장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⁶⁹⁾

이런 근거들을 바탕으로 주장된 제주도 여학교의 존재는 라쿠르 신부가 신성여학교를 세우기 이전 여학교가 운영되고 있었으며, 이미 천주교에 의한 근대교육이 제주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여학교가 신성여학교의 연장선상에 있는 교육시설로 볼 수 있다면, 제주도 최초의 여학교와 근대학교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는 민감한 내용인 것이다. 이 주장은 이어진 신성여학교 관련 연구에서 계속 등장하며 사실처럼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이 주장에 몇 가지 오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제주교안 이후 제주 천주교의 상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여학교가 언급되었던 서한은 1903년 10월 2일자이다. 따라서 여학교가 세워진 시기는 1903년 10월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학교의 근거로 제시되는 <그림 1>의 사진은 1902년이라고 기록되어있기 때문에 사진이 제주도 여학교의 모습을 찍은 것이라면 설립 시기는 190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제주도 여학교가 설립된 시기는 1902~3년경이 된다.

그러나 제주도 여학교 설립이 주장된 1902~3년은 시기상으로 볼 때, 천주교에서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1902~3년은 제주교안이 발생한지 1년 안밖의 시점이었고, 아직 제주교안 사건 마무리가 되지 않아 천주교 내부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였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제주교안 이후 천주교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시선이 곱지 못해, 선교활동은 커녕 종교활동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였다. 이러한 제주의 반 천주교적인 분위기는 1903년 무렵까지 이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둘째, 자료집 번역의 오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선 주장에서 인용한 자료는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제주의 라쿠르 신부가 한국 주교인 뫼텔에게 보낸 서한이 담겨있다. 자료집을 살펴보면 라쿠르 신부의 서한 원문이 프랑스어로 원편에 기재되어 있고, 오른쪽에 한글 번역문이 실려 있는 형태로 편집되었다. 그 중에서 제주도 여학교가 언급되는 문장을 원문과 번역문으로 나누

69) 양진건, 앞의 논문, 1997, 426쪽.

어 보면 다음과 같다.

La supérieure du couvent de Che-Ju a donné sa démission et va se marier avec mon maître de maison!

제주도 여학교의 여교장이 사직을 하고 제 집주인과 결혼할 것입니다!⁷⁰⁾

아래 한글 번역문에 대응되는 프랑스어 원문 문장이 그 위의 문장이다. 프랑스어 원문에 나오는 'supérieure du couvent de Che-Ju'를 번역문에서는 '제주도 여학교 여교장'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료집에 실린 프랑스 단어를 직역하여 살펴보면 의미가 달라질 소지가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supérieure'는 '여성 상관', '여성장', 'couvent'는 '수도원', '(수녀원 부속)여자 기숙학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직역해보면 '여성 수도원장' 혹은 '(수녀원 부속)여자 기숙학교 여교장'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자료집 번역문에서는 여자기숙학교 여교장의 의미를 의역하여 여학교 여교장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먼저 'couvent'라는 단어를 여학교로 볼 때에는 '수녀원 부속'이라는 숨은 의미가 담겨 있다. 하지만 당시 제주에는 수녀원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이 모호해진다. 수녀원 부속이라는 숨은 의미를 차치하더라도 여자 기숙학교라는 의미가 단순히 여학교로 해석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1909년에 설립된 기숙학교인 신성여학교를 표현할 때는 'couvent'라는 단어가 아닌 'école de filles'라는 단어로 표시하기 때문이다. 여학교를 뜻하는 'école de filles'라는 단어와 'couvent'는 엄연히 구분되는 의미를 가진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학교라는 단어를 두고 'couvent'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한 이유는 다른 까닭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셋째, 선교사의 서한 앞뒤 내용상 모순되는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주도 여학교가 등장하는 문장의 바로 위 문장을 살펴보면 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7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3년 10월 2일, 175쪽.

현재 제 구역에는 예비자가 제법 많이 있는 마을이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교양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지에는 계획이란 것이 있고, 게다가 그 계획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발을 내딛고 3~4년 후에는 충실한 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의 부족으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⁷¹⁾

라쿠르 신부는 예비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교양을 길러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육지에는 이를 위해 계획이 있고 일관성이 있지만, 이곳에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양을 길러주는 교육과 일관성 있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학교를 떠올릴 수 있다. 실제 육지에서는 천주교에서 설립한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들은 일관성 있게 천주교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었다. 하지만 제주에는 그런 학교가 없으며, 따라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의 문장이다. 비록 여기서 말하는 일관성있는 교육이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교육은 제주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바로 아래 문장에 제주도 여학교 여교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내용상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

넷째, 천주교 재정 형편상 학교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었던 점이 있다. 당시 제주 천주교의 재정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 사이에 차이를 두는 일이 그들에게는 매우 어렵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며, 학교와 교리 교사, 무료 진료소 등이 있습니다. 그들의 하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조차 저보다 부유합니다. ... 사실 미국인 감리교도들이 그들에게 학교를 지어 주고 어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것을 사주는 대가로 400명 이상을 끌어 모았습니다.⁷²⁾

1908년에 작성한 서한을 보면 천주교 선교사는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에서 세운 학교를 부러워하며, 자신의 재정 형편을 한탄하는 듯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서한에

7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3년 10월 2일, 175쪽.

7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1908년 5월 18일 서한에 첨부되어 있던 것으로 판단되는 서한, 221쪽.

서 등장하는 개신교계 학교는 공식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다. 따라서 이 학교는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보면 천주교에서는 1908년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에서 운영하는 소규모 학교조차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설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원인은 재정적인 요인이 컸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종합적으로 보면 신성여학교 이전 제주도 여학교가 존재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료집에서 언급한 제주도 여학교의 실체는 무엇일까? 제주도 여학교의 실체는 성영회의 도움을 받아 운영된 고아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학살된 예비자와 새 신자들의 많은 아이들을 성영회에서 양육하는 아이들로 받아들였습니다.⁷³⁾

라쿠르 신부가 제주교안으로 목숨을 잃은 신자의 아이들을 聖嬰會에서 받아들여 양육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성영회⁷⁴⁾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천주교계 아동구호단체였다.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신부인 메스트로 신부가 1854년에 박해로 목숨을 잃은 신자의 아이들이나 일반 고아들을 양육하기 위해 한국에 들어와 운영되고 있었다. 라쿠르 신부는 이 성영회를 통해 고아원을 운영하여 제주교안 이후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려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설립되었던 성영회 고아원이 제주도 여학교로 오인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도 여학교가 아닌 성영회 고아원이 운영되었다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황상 제주도 여학교 보다는 성영회 고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제주교안 이후 어려운 제주 천주교 상황 때문에 제주도 여학교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은 이미 확인하였다. 그러나 여학교가 아닌 성영회에서 운영한 고아원으로

7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1년 12월 17일, 111쪽.

74) 프랑스 파리의 홀본 잔송이라는 인물이 1843년 창설한 단체이다. 성영회는 죽음에 직면한 고아들을 거두어 천주교 신자 가정에 맡겨 이를 키우도록 하는 아동구호사업 단체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파리 외방전교회 소속 선교사로 들어온 메스트로 신부가 프랑스 성영회 본부에 재정 지원을 받아 '조선영혜회'라는 이름으로 1854년 창설했다. 조선영혜회는 천주교 박해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돌보는데 힘을 쏟았다(오승환 외, 「근대적 아동복지사업의 도입과 전개에 관한 연구」, 『동광』 111, 2016, 58-59쪽).

볼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1901년 제주교안으로 발생한 고아들을 돌보기 천주교 차원에서 고아원을 운영했다는 전개는 시기상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문장의 해석 문제를 근거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제주도 여학교 여교장’이라는 해석은 ‘제주도 수도원 여성원장’으로 직역될 수 있다. 수도원 여성원장이라고 직역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수도원은 성영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 여학교 여교장’이라는 문장을 다시 해석해본다면, 제주도 성영회 고아원 원장 혹은 담당자 정도로 해석하는 것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당시 제주교구의 교세를 기록한 교세 통계표가 근거가 될 수 있다. 선교사들이 당시 제주의 교세를 매년 조사한 통계표를 보면 성영회 고아원이 운영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명확해진다.

<표 1> 제주교구 교세 통계표⁷⁵⁾

연도	지역	총교우	예비신자	학교	학생	고아원 고아	위탁 고아
1899~1900	제 주		10				
	대 정						
	정 의	20	20				
1900~1901	제 주	104					
	대 정	36	238				
	정 의	101	382				
1901~1902 (제주교안)	제 주	?	?			7	
	대 정	2					
	정 의	33	6			3	
1902~1903	제 주						
	대 정	60	100			9	
	정 의						
1903~1904	제 주						
	대 정	14	30				
	정 의	87	131			5	
~							
1909~1910 (신성여학교)	제 주	207	?	1	40		
	대 정	195	14			4	
	정 의						
1910~1911	제 주			1	50	1	
	대 정	197	7			3	
	정 의						

75)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282-288쪽.

<표 1>에서 제주도 여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는 1902년부터 1903년까지의 기록을 보면 천주교에서 운영한 학교와 학생들은 통계에서 보이지 않는다. 비록 제주도 여학교가 정식 학교가 아니었다더라도 선교사들이 학교라고 인식했다면 기록한 통계 학교란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정상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 여학교를 학교란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은 천주교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았거나 적어도 학교로 인식되는 기관은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또한 통계표에는 고아원 고아와 위탁 고아를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표에는 제주에 위탁된 고아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제주교안이 있었던 1901년 이후 고아원의 고아들은 표시된 것으로 보아 제주에서는 고아원을 따로 운영하여 고아를 관리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들로 미루어 볼 때, 라쿠르 신부 서한에 등장하는 ‘제주도 여학교’로 번역되는 기관의 실체는 성영회 소속 고아원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 1902년 사진에서 등장하는 학생들과 성인 여성은 고아원 아이들과 고아원 원장으로 바꾸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라쿠르 신부는 제주교안 이후 발생한 많은 고아들과 생계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 성영회라는 고아 구제 전문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아원을 운영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라쿠르 신부는 때로는 무리하면서까지 고아원 아이들을 받아들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때로는 한 가정에서 두 아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가정들과 아이들의 생계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교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제가 지나쳤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⁷⁶⁾

라쿠르 신부는 정황상 지나친 일이 될 수 있음에도 아이들의 생계와 신앙을 위해 적극적으로 고아들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성영회 고아원의 운영은 제주교안 사건 이후 제주 천주교 차원의 사건 수습방법 중 하나였다. 또한 나름의 체계와 지원을 갖춘 제주 최초의 근대적 고

76)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1년 12월 17일, 111쪽.

아구제사업을 펼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고아원 출신의 아이들 중 일부는 훗날 신성여학교에 입학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볼 때, 제주 천주교에서 보육부터 교육까지 이르는 하나의 근대 유아·초등교육 체계를 제주에 실현했다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Ⅲ. 신성여학교의 설립과 운영

1. 신성여학교 설립과정

1) 라쿠르 신부의 신성여학교학교 설립 배경

제주교안 이후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보면 제주 천주교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선교방식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본래 라쿠르 신부는 제주에서 직접 도민들과 만나며, 그들을 신자로 만드는 형태로 교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즉, 직접 방문하거나 찾아오는 사람을 교화하여 천주교로 입교시키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선교 방식은 제주교안 이후 반 천주교 분위기가 확산되어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라쿠르 신부가 선교의 방법 중 하나로 선택한 것이 바로 교육을 통한 선교였다. 실제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보면 제주교안 이후로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언급하며, 교육에 대한 열망을 드러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에 영어 교사인 한 일본인이 제주읍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이 사람은 제 엄지손가락보다 더 크지 않은데도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국말을 알지도 못하면서 한국인들의 학교 선생이 되겠다는 거죠!⁷⁷⁾

1903년 3월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보면 일본인의 학교 설립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서한에서 라쿠르 신부는 한국말을 못 하는 일본인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학교를 세우려 한다는 사실에 어처구니가 없어하는 반응을 보인다. 이 서한에서 나오는 학교는 일본인 하라 요시마루[原吉丸]가 세운 일어학당⁷⁸⁾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쿠르 신부가 일본어학교에 대해 이처럼 격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천주교

77)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3년 3월 12일, 157쪽.

78) 일본인 하라 요시마루가 1903년 일어학당을 개설한 바 있는데, 시기상으로 미루어 보아, 이 일어학당을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된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6쪽).

에서 설립을 시도했던 프랑스어 학교의 실패 때문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제주 선교 초기 라쿠르 신부가 부임하기 이전, 페네 신부가 제주 군수의 자제 및 젊은이를 대상으로 프랑스어를 가르쳤고, 학교 설립까지 추진했었다. 그러나 페네 신부가 제주를 떠나면서 프랑스어 학교 설립은 무산된 일이 있었다.⁷⁹⁾ 이 사건으로 미루어 볼 때, 한국어가 가능한 제주 선교사들조차 실패한 외국어학교 설립을 한국어도 모르는 일본인이 시도하는 모습을 보고 우습게 여겼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리고 1903년 10월에 이르면 학교 설립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내는 서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제 구역에는 예비자가 제법 많이 있는 마을이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의 교양을 길러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육지에는 계획이란 것이 있고, 게다가 그 계획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발을 내딛고 3~4년 후에는 충실한 신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속적인 교육의 부족으로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⁸⁰⁾

라쿠르 신부는 조선 주교에게 직접적으로 제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육지에서는 일관적이고 계획적인 교육을 통해 선교를 하고 있지만, 제주에는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 제주선교가 물거품이 될 수 있음을 걱정하고 있다. 서한에서 말하는 ‘일관성 있는 계획’을 통한 교육이라는 것이 학교와 같은 교육시설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지칭하는 것으로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다. 이것으로 볼 때, 라

79) 1899년 페네 신부의 서한을 보면 프랑스어 학교의 설립 시도를 살펴볼 수 있다.

“저는 지금 프랑스어 수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수가 그의 아이들을 제게 보내겠다고 말했으며 저는 기꺼이 수락했지만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페네 신부’, 1899년 10월 8일, 33쪽).

“주교님께서 마지막 편지에서 제가 이곳에 외견상의 프랑스어 학교를 세우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기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전에도 노력했고 이후로도 애를 썼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읍의 군수가 제물포를 지나칠 때 그의 자식들을 가르치게 하고 교육시킬 뜻을 나타냈지만 그는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의 뜻대로 따르겠다 하면서 두 번이나 말을 붙일 때마다 그는 제게 고마워했고 기꺼이 받아들여겠다고 말했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몇 명의 젊은이들이 프랑스어를 가르쳐 달라고 제게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지만, 며칠 후에 돌아와서는 부모들이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첫 수업을 했습니다! ... 제가 학교에 애착을 갖는 것은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 아니고,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종교에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학교를 갖게 될 것입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페네 신부’, 1899년 10월 30일, 41쪽).

8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3년 10월 2일, 175쪽.

쿠르 신부는 제주 천주교의 발전을 위해서 육지에서 추진되는 일관성 있는 교육처럼 근대학교 설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라쿠르 신부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와중 1906년 무렵부터 제주에도 근대학교들이 설립되기 시작했다.

일본인, 한국인 프로테스탄트 신자들과 이교도들 할 것 없이 모두들 학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만 뒤쳐져 있었습니다.⁸¹⁾

일본어 학교, 사립학교인 의흥학교, 공립학교인 공립보통학교, 그리고 공립형 사립학교인 의신학교 등 라쿠르 신부가 맡고 있는 제주본당이 소재한 제주성을 중심으로 근대학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다. 학교 설립을 희망하고 있던 라쿠르 신부에게 제주 근대학교의 설립은 자연스럽게 자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학교 설립의 의지를 더욱 자극한 결정적 요인은 경쟁구도를 지니고 있던 개신교의 교육활동이었을 것이다.

이곳 제주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신자들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선생 한 분에게 지불할 엽전도 부족하여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⁸²⁾

프로테스탄트들의 교육활동은 천주교 선교사 입장에서 큰 자극이었다. 이 시기 제주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면 유독 개신교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된다. 주로 개신교인들이 많은 돈을 투자하여 신자들을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⁸³⁾ 위의 서한에서도 마찬가지로 개신교인들이 여학교를 세워 학생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신교계 여학교는 공식 학교는 아니지만, 신자들만을 위한 교리학교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천주교 측에서도 교리 교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⁸⁴⁾ 개신교의 학교를 부러워하는 것

8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8년 9월 24일, 153-155쪽.

8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8년 9월 24일, 155쪽.

83) 라쿠르 신부, 페네, 타케 신부의 서한에서 주로 개신교 선교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84) "라쿠르 신부는 그곳에서 공소로 쓰일 집 한 채를 샀고, 운 좋게 훌륭한 교리 교사 하나를 찾아내

으로 보아 개신교 수준의 교육 운영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갔다는 것으로 보아 서한에서 언급된 개신교 학교는 자신들의 교인을 제외한 일부 外敎人까지 받아서 가르치는 수준의 학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선교에 있어 경쟁적 관계에 있던 개신교에서 먼저 여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은 천주교 선교사 입장에서는 큰 자극으로 다가왔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천주교의 학교설립이 수월했던 것도 학교설립의 결심에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감부는 한국에 처음 사립학교들이 설립되던 때, 한국을 개화한다는 전제 하에 사립학교가 친일화에 도움이 되거나 적어도 반일의 성향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한국인들을 교육시키는데 국비나 지방비를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의 설립을 방치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통감부는 초기에 사립학교 설립을 엄격하게 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차 ‘국권회복’을 내세우는 사립학교들이 많아지자 상황은 달라졌다. 당시 간행된 각종 신문 및 학회지에 게재된 50여 개의 사립학교 설립취지서를 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이 ‘국권회복’을 내걸고 있었다.⁸⁵⁾ 근대교육운동이 국권회복운동과 결부되면서 항일민족교육운동으로 발전되어 갔다. 그 결과 1908년에 이르러 사립학교 수는 4,000~5,000여 개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였다. 1908년 관공립학교 수가 50여 개였던 점을 감안하면 8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셈이었다. 국권회복을 기치로 건 사립학교의 급증은 식민통치에 위협적으로 다가오게 되었고, 이에 통감부는 명분을 찾아 이를 통제할 조직과 제도를 만들어야만 했다. 결국 통감부는 사립학교의 정치세력화를 막기 위해 1908년 8월 「사립학교령」⁸⁶⁾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통감부가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압박을 가했던 것은 아니다. 학부차관 다와라 마고이치(表孫一)는 「사립학교령」의 마감시한이 다가오자 1909년 4월 각 府·道

때때로 그곳으로 보냈습니다.”라는 대목으로 볼 때 천주교에서도 교리 교사를 두어 제주 교인들을 상대로 교리 교육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타케 신부’, 135쪽).

85) 김상기, 앞의 논문, 1984, 69-70쪽.

86) 「사립학교령」의 주된 내용은 첫째,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학부가 정한 사항을 구비하여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둘째, 사립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는 학부가 편찬한 것, 또는 학부대신의 검정을 거친 것을 사용하되, 이외의 도서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셋째, 사립학교 설립자, 학교장, 교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넷째, 사립학교의 설립 수업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부대신이 이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섯째, 학부대신은 사립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이계형, 앞의 논문, 2007, 133쪽).

교육주무주사 회의를 개최하였다. 그는 사립학교를 불교·기독교 등을 기조로 교육을 실시하는 종교학교와 정치학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종교학교는 보호하되 정치학교는 배척한다는 방침을 수립하였다. 다만 학부차관은 종교학교들도 「사립학교령」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에 대해서는 종교교육을 위한 각종 편의 및 도움을 줄 것이며, 아울러 각 학교의 수준에 따라서 동등하게 졸업장의 학력을 인정할 것이라며 외국인 선교사들을 설득하였다.⁸⁷⁾ 따라서 「사립학교령」 초기에는 천주교에서 학교를 설립할 때, 큰 무리 없이 학교 인가를 받았고 별다른 방해 없이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천주교 차원에서의 학교 설립 의지도 신성여학교 설립의 시기에 맞추어 영향을 주었다. 한국 천주교에서는 한말 근대학교 설립이 활발해지고, 선교 차원에서 백성들을 교화하려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교육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또한 대한제국 정부 측에서도 근대적 교육체계를 세우기 위해 1898년 한국 천주교를 이끌고 있던 뫼텔 주교에게 근대교육 체계를 세워 달라고 요청하였다. 천주교에서 교육기관을 지어주면 교육기관에 연 15,000원을 지원하겠다고 제의한 것이다. 이에 뫼텔 주교는 「교육설치기준령」을 작성하여 1906년 8월 27일 황제 칙령으로 반포하였다. 그러나 불행히도 을사조약 이후 대한제국이 일본의 보호국이 되면서 계획이 허사로 돌아가게 되었다.⁸⁸⁾

정부에 의한 지원이 무산되었지만 뫼텔 주교는 학교 설립 의지를 멈추지 않았다. 해외 수도원의 지원을 통해서 한국에 학교를 설치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하였다. 1908년 뫼텔 주교가 파리의방전교회에 남긴 「조선에 학교설립을 위한 계획서」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계획서에는 지금 한국에서는 학교의 설립이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 교육을 통해서 만이 천주교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뫼텔 주교가 외부에 지원을 요청한 단체는 청소년 교육을 사도직으로 하는 ‘살레시오회’와 ‘마리아의 형제회’, 독일의 ‘분도 수도회’ 또 ‘오틸리안 분도 수도회’나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 본부 등 외부 수도원들이었다.⁸⁹⁾ 한국 천주교는 외부 단체들을 통해 학교설립을 추진한 것이다.

87) 이계형, 앞의 논문, 2007, 134쪽.

88) 윤병훈,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가 한국 근대교육기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04쪽.

89) 윤병훈, 앞의 논문, 2008, 146-157쪽.

이처럼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은 시기적 적절성과 외부의 지원 요소 그리고 라쿠르 신부의 학교설립 결심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학교 설립 지원과 신성여학교

신성여학교 설립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때는 1908년경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이 시기 처음 등장한다.

드디어! 비에모 신부의 마지막 편지가 주교님께서 곧 도착하실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금쯤은 아마도 주교님께서 서울에 돌아와 계시겠지요. 저희는 주교님의 교섭에 있어서도, 근심에 있어서도 주교님의 뒤를 따라갔었고, 주교님의 성공과 기쁨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⁹⁰⁾

뤼텔 주교는 한국에 종교학교 설립을 하고자 해외단체와 직접 교섭을 위해 해외 순방을 다녀왔다. 뫼텔 주교의 유럽 순방은 10달가량 이루어졌다. 뫼텔 주교는 해외 순방에서 각 국에 있는 수도원을 방문하여 한국에 학교 설립을 위한 지원 여부를 타진하고 돌아다녔다.⁹¹⁾ 서한에서 주교님의 “성공과 기쁨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라는 대목에서 교섭의 결과가 긍정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바로 이어서 “마침내 저희들은 학교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는 대목에서 지원의 결과가 제주 학교 설립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부 지원을 통해 제주에서 바라던 학교의 설립도 희망을 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1909년 9월에는 학교 설립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섰다. 이는 학교설립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관대한 한 분⁹²⁾의 자발적인 협력 덕분에 제주에 여학교(신성여학교) 건립의 가능성은 더 이상 공상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교님께 전하고, 동시에 샬트

9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8년 9월 24일, 153쪽.

91) 뫼텔 주교는 1908년 1월 24일 출발하여 유럽을 방문한 뒤 같은 해 11월 14일 서울에 돌아왔다.

92) 여기서 말하는 관대한 한 분은 박영효이다. 철종의 사위이자 급진 개화파의 일원인 박영효는 당시 대신 암살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제주도에 유배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신성여학교의 설립을 위해 제주도를 돌아다니던 라쿠르 신부와 만나게 된다. 근대 계몽운동을 하던 박영효와 학교를 설립하고 싶었던 라쿠르 신부가 만나 신성여학교 설립에 이르게 되었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2-33쪽).

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여학교를 관리하도록 허락해 주십사고 부탁드립니다. 저는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또한 주교님께 보내는 편지와 함께 서울의 수녀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작년에 주교님이 정하신 조건으로 2명의 여선생을 뽑아 보내 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에도 신부는 그 학교로 쓰일 집을 방문했고, 그의 새 용도에 적합한 몇 가지 정비를 하면 그 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교님께서 제 부탁을 들어주시고 이런 목적 하에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원에 필요한 허가를 내주시기를 희망합니다.⁹³⁾

신성여학교 설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준 인물과 단체가 있었다. 먼저 학교설립에 도움을 준 인물은 ‘관대한 분’이라고 표현된 박영효이다. 라쿠르 신부는 박영효를 관대한 분이라고 칭하며 학교 설립에 박영효가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도움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당시 제주에 있던 박영효는 제주의 관리, 지식인, 종교인들과 두루 알고 지냈는데, 라쿠르 신부와도 연이 닿아 도움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박영효는 이미 제주 근대학교 설립에 영향을 미친 바 있었다. 1907년 제주 군수 윤원구가 세운 의신학교 설립에 100원을 내어 도움을 준 바 있었고, 1910년에는 향사당 서쪽에 제주 최초 개신교 교회인 성내교회가 설립될 때에도 금전적 도움을 주었다.⁹⁴⁾ 박영효는 근대교육과 근대문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제주에서 근대화를 실현하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박영효가 구체적으로 신성여학교에 도움을 준 기록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박영효의 정부 내 영향력과 일본 내 입지 등을 고려할 때 정부나 관을 상대로 학교 인허가에 도움을 주었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 라쿠르 신부의 바로 다음 서한을 보면 학교 인허가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⁹⁵⁾ 또한 박영효는 신성여학교에 금전적인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높다. 신성여학교 설립의 가장 큰 걸림돌은 재정 문제였다. 같은 시기 박영효는 의신학교와 성내교회의 설립에 금전 지원 외에 제주 사립 함덕 학교 설립⁹⁶⁾과 서울 보광학교 지원⁹⁷⁾을 했었다. 또한 세워진 학교를 운영

9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9월 5일, 231쪽.

9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32-33쪽.

95)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10월 20일, 233쪽.

96) “漁民威德 濟州郡威德里에居生호는數百戶民人들은漁業으로資生호는디教育의急務됨을覺悟호고私立威德學校를設立호야基本金은漁磯의所出로每年陸百圓式을收入補用호기로契約호고講師를延聘호야學徒를教授호는디校長黃萬平氏가一百圓을義捐함이該郡에滞在호錦陵尉朴泳孝以下諸氏가亦百餘圓을捐助호앗다더라.”(『황성신문』, 1909년 2월 19일 기사).

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땅을 싸게 구입하여 외국 과실나무를 심어 학교 자본을 세웠다⁹⁸⁾는 기록도 남아있다. 이런 점들로 보아 라쿠르 신부가 말한 박영효의 도움에는 금전적 지원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지원도 큰 역할을 했다. 앞의 서한 내용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학교를 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한 수녀회에 2명의 여선생을 보내줄 것을 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교의 운영과 교사 수급을 전적으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신성여학교의 설립에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또 이후 서한들을 보면 추가적으로 수녀의 수급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⁹⁹⁾ 설립 이후 학교 운영에도 많은 것을 샬트르 수녀회에 기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신성여학교의 지원을 담당하게 된 이유는 제주 성영회 고아원 운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래 성영회의 영유아 구제사업과 고아원 운영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와 큰 연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 성영회 설립 초기 고아원 운영사업은 급속도로 발전했는데, 고아원의 급격한 발전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야기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영회는 고아원 경영의 경험을 갖고 있는 서구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고자 하였다. 블랑 주교는 1887년 7월에 프랑스 샬트르에 있는 성 바오로 수녀회 본부 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고아원과 양로원에 근무할 수녀들을 파견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지난 3월(1885년),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서울에 고아원을 설치했습니다. 그 후 5개월 동안 39명의 어린이를 받았는데 그 중 13명은 대세를 받고 사망했으며, 지금 26명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유모를 구할 수 있고, 또 한 집에 너무 많은 어린이를 모아 놓음으로써 외교인들의 눈총을 받거나 공연한 의구심을 자극할 염려만 없다면 어린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우리에게 자유가 있고, 이 고아원을 맡아 줄 몇 명의 수녀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¹⁰⁰⁾

97) 『대한매일신보』, 1909년 10월 24일 기사.

98) “濟州島에 滯留한 錦陵尉朴泳孝씨가 嶺南에 學校를 設立하고 永遠한 方針으로 田土幾日畝를 買得하여 外國各種果木을 播植하고 學校資本을 成立한다더라.”(『대한매일신보』, 1908년 4월 3일 기사).

99)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10월 20일, 233쪽.

100) C.R., 1885(노길명, 「조선 후기 가톨릭 아동복지사업의 전개와 성격」, 『한국영유아보육학』 28, 한국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는 블랑 주교의 요청에 따라 고아 구제사업을 전담할 수녀로 프랑스 수녀 2명과 중국인 수녀 2명을 파견하였다. 이들은 1888년 7월 22일 입국하였는데, 이들은 한국에 진출한 최초의 수녀들이었다. 한국 천주교 수도원의 역사는 이때부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입국한 네 명의 수녀들은 고아원 운영에 대한 책임을 맡아 본격적인 근대 고아 구제사업을 펼쳐나갔다.¹⁰¹⁾

이처럼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가 처음 한국에 발을 디딘 이유가 바로 성영회 고아원의 운영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제주에서 운영되었던 성영회 고아원에도 자연스럽게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소식과 영향이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것이 곧 발단이 되어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신성여학교 설립과 연결되어 도움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이러한 주위의 도움에 힘입어 천주교가 제주에 발을 디딘 지 약 10년 만에 근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계획하고 있는 학교는 수녀님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여학생들을 개종시키는 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 둘뿐 아니라 서너 명의 수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닐 것이고, 저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¹⁰²⁾

그리고 1909년 10월 마침내 신성여학교는 학생들을 천주교로 개종시키는데 열의를 쏟지 않는다는 종교와 교육의 분리를 조건으로 허가가 났다. 11월 말에는 교사로 부임하기로 했던 수녀 두 명이 제주에 도착했고,¹⁰³⁾ 조천 출신 교육자 김시진이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며 본격적으로 신성여학교가 근대여학교로서 제주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¹⁰⁴⁾

영유아보육학회, 2002, 52쪽 재인용).

101) 유홍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875쪽.

10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10월 20일, 233쪽.

103) 신성여학교 교사로 부임한 김 아나타시아 수녀와 이 곤자 수녀는 1909년 11월 28일 제주에 도착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10월 20일, 233쪽).

104) 초대 교장 김시진은 제주 조천출신 교육자로 신성여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여 1911년 4월까지 교장직을 수행했다(김찬흡, 앞의 책, 2000, 145-146쪽).

2. 학교 재정의 운용

1) 학교 운영과 자본금의 확보

신성여학교 운영에서 신부와 수녀가 맡은 역할은 각각 달랐다. 학생들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등 학교 내부적인 일은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소속 수녀들이 맡았고, 학교 관리 및 재정 운영 등 학교 외적인 부분은 라쿠르 신부가 담당했다. 신성여학교는 규모가 큰 학교가 아니었음에도 신부와 수녀 각각 영역의 업무가 철저하게 분업된 형태였다. 이렇게 신성여학교가 철저하게 분리 운영을 한 이유는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특징 때문이었다.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대개의 학교는 신부가 직접 가르치지 않았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규율로써 지키고 있었다. 개신교 목사들이 학교를 세워 직접 가르침의 활동에 뛰어든 것과 비교하면 신부들의 교육활동은 소극적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런 차이점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종파 간 교리차이로 생긴 교육방법에 있었다.¹⁰⁵⁾ 천주교가 개신교와 비교해 학교 설립이 늦어진 이유와 제주 신성여학교의 설립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도 이런 천주교의 종교적 특징이 한몫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여학교도 마찬가지로 라쿠르 신부가 직접 여학생들을 가르칠 수 없었기 때문에 라쿠르 신부는 여학교 교사 수급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 그런데 마침 샬트르 수녀회에서 지방 학교 교육을 위해 수녀를 교사로 양성하고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샬트르 수녀회로부터 수녀 교사를 지원 받아, 수녀들에게 학교 교육의 모든 부분을 맡길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라쿠르 신부는 학교 운영과 재정 확보에 힘을 쏟을 수 있었다.

라쿠르 신부가 신성여학교 운영을 위해 자금을 확보해 나간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당시 사용한 화폐 단위와 환율에 대한 확인이다. 라쿠르 신부를 비롯해 당시 제주에 있었던 선교사의 서한과 서울교구 주교의 보고서 등 천주교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다양한 화폐 단위가 등장한다. 그러다 보니 화폐 단위에 대한 해석과 표기 오류도 간혹 등장하고, 또 당시 환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이 오고 간 것인지 바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105) 양진건, 앞의 논문, 1997, 431쪽.

따라서 이러한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 먼저 당시 선교사들이 사용했던 화폐 단위와 환율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우선 기록에서 등장하는 화폐의 단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화폐 중 하나는 한국의 舊화폐 단위인 ‘냥(兩)’이다. 프랑스 선교사들은 프랑스어로 ‘ligature’ 혹은 ‘yep’, ‘ligature yep’ 등으로 표시했는데, 한국말로 ‘냥’이라고 해석되고 있다.¹⁰⁶⁾ 프랑스어의 ‘ligature’라는 단어가 ‘동여매다’, ‘끈으로 묶다’라는 뜻이 있는데, 당시 일반적으로 구화폐인 엽전을 줄로 엮어서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 또는 환(圓)으로 불렸던 대한제국의 新화폐도 등장한다. 그리고 선교사들 간에 주로 사용했던 화폐인 피아스트르(piastre)라는 화폐가 등장한다. 피아스트르 화폐는 라틴계 나라에서 주로 쓰였는데, 라틴계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천주교 내부에서 주로 통용했던 화폐였던 것으로 보인다. 선교사들이 천주교 중앙에 보고할 때에는 보통 피아스트르 화폐 단위로 기록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당시 한국에서 통용되던 일본의 화폐인 엔 ‘yen’ 역시 많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기록된 내용에는 대부분 화폐단위로 엔을 사용하고 있다. 이밖에 ‘\$’로 표기된 달러나 가끔 등장하는 프랑스 화폐인 ‘프랑’까지도 쓰이는 등 다양한 단위의 화폐가 천주교 측 자료에서 언급된다.

화폐의 환율도 중요한 문제이다. 서한마다 언급되는 화폐 단위가 제각각이고 시기마다 환율이 다르므로 학교의 재정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면 각각 화폐의 당시 환율에 대한 기록들이 남겨져 있다. 시기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환율은 알 수는 없지만, 내용을 종합하면 대략적인 당시 각 화폐의 환율을 계산할 수 있다. 100냥을 기준으로 할 때 같은 가격의 화폐들은 다음과 같다.

106) 이는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의 해석을 따른 것이다.

<표 2> 화폐 단위 및 환율¹⁰⁷⁾

화폐 단위	냥(兩) (ligature, yep, ligature yep)	원 또는 환(圓)	피아스트르 (piastre)	엔(圓) (yen)	달러 (\$)	프랑 (franc)
1904년 이전 환율 (화폐 정리 사업 이전)	100	20	20	2.27	?	?
1904년 이후 환율 (화폐 정리 사업 이후)	100	10	15.36	15.38	15.2	260

<표2>는 구화폐 100냥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각 화폐의 환율이다. 1904년 일본 주도의 화폐 정리 사업 이후에는 환율이 크게 변동하였는데, 아래의 환율이 1904년 이후의 환율이다. 1904년 이전의 기준으로 보면 100냥은 피아스트르 화폐로 20피아스트르가 된다. 마찬가지로 엔화로는 2.27엔, 신화폐인 원으로는 2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와 마찬가지로 1904년 이후의 환율을 살펴보면, 10원, 15.36피아스트르, 15.38엔, 15.2달러, 260프랑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환율을 바탕으로 당시 화폐 간의 가치를 대략 확인할 수 있고, 또 한국 화폐인 냥이나 일본 화폐인 엔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정리할 수 있다.

본격적으로 신성여학교의 재정운용을 살펴보려면, 학교의 재정을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주교님, 저의 지출에 대해 놀라지 않으시기 위해 올해의 어려움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주교님께 돈의 지출에 대한 상세한 문서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¹⁰⁸⁾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보면 주교에게 재정 지출에 관한 상세한 문서를 보냈다고

107)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뮌헨, 「조선에 학교설립을 위한 계획서」, 1908년 7월 7일자 등의 내용을 참고했다. 대한제국 말기 기록에서 언급하는 당시 화폐와 선교사들이 언급하는 환율 비율을 맞추어 계산했다. 환율이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으나, 대략의 화폐 교환 값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제작했다.

108)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0년 10월 11일, 47쪽.

기록되어있지만, 이 기록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제주 천주교의 재정 운용 자료가 공개되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공개된 신부들의 서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으로 추산하여 당시 신성여학교의 재정 운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먼저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라쿠르 신부의 초기 자본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쿠르 신부가 처음 부임할 당시 가지고 있던 자금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었다. 라쿠르 신부가 入島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서한이 있다.

이곳에 도착하여 금고에서 2백 냥만을 발견했고 아무 비축된 식료품도 보지 못했습니다.¹⁰⁹⁾

라쿠르 신부가 처음 제주에 도착했을 당시 금고에 있는 2백 냥 이외에는 다른 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쿠르 신부가 개인적으로 돈을 어느 정도 지니고 왔다 하더라도 큰돈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해보면, 부임 초기에는 상당히 적은 액수의 금액만 수중에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정으로 볼 때, 초기에는 라쿠르 신부가 학교를 설립하거나 운영할 정도의 돈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라쿠르 신부는 신성여학교 설립 자본금을 어떤 경로를 통해 확보했고, 또 학교를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일까?

학교설립자금이나 운영자금을 한국 천주교에서나 다른 기관에서 지원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자본금은 여러 경로를 통해 차근차근 모아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추정이 가능한 이유는 다른 지역의 천주교 학교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연말 보고에서 나는 수시로 학교에 대해 언급했으나 이에 관한 말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나 인상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결과만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를 세우고 또는 유지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는 이들도 있습니다. 신식 학교를 세우는데 대한 주민들의 전체적인 경향에 따라 우리 교우들도 일반적으로 가톨릭학교를 세우는데 헌금을 꽤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기의 열성이 식

109)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0년 10월 11일, 47쪽.

어지고, 그래서 흔히 선교사들 자신이 학교 유지의 무거운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 때로는 외교인 교사들에게까지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가톨릭학교가 겪어야 하는 이런 실정의 모든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종교 교육이 등한시되고, 선교사 자신이 그것을 보충할 수 없는 학교들은 이 점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합니다.¹¹⁰⁾

천주교 학교들은 신자들의 도움을 받아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학교 유지에는 큰돈이 필요하였다. 때문에 학교 운영에 관련된 비용을 고스란히 학교를 설립한 선교사가 부담해야만 하였다. 때로는 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했고, 급기야 선교사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학교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제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설립자금이 모이더라도 유지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립과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라쿠르 신부 자신이 모두 책임져야 했다. 이를 모를 리 없었던 라쿠르 신부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학교 자본금을 모으고자 노력했다.

신성여학교 자본금의 출처 중 한 갈래는 천주교 소속 외국단체들의 기부에서 찾을 수 있다.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면 외부단체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한다.

작년에 샤르즈비프 신부는 1801년 순교한 황사영의 증손자들의 비참한 상황을 프랑스에 알렸습니다. 선교회는 이 순교자를 기억하고자했고, 그들에게 480프랑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한 채 샀고 기회가 닿는 대로 나머지 돈으로 그들에게 발도 사줄 예정입니다.¹¹¹⁾

저는 성탄절 밤에 15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25일 낮에는 종일 동경의 예수회원 헬리그 신부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름 며칠 동안을 제주에서 보냈고 미래의 제 성당을 위해 600엔을 기부하였습니다.¹¹²⁾

110) 명동천주교회, 「1909년도 보고서」,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1집 서울교구연보(II)』 (1904~193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78쪽.

11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7월 17일, 253쪽.

11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3년 12월 28일, 277쪽.

전교회에서 24달러를 줍니다.¹¹³⁾

라쿠르 신부는 1910년 선교회를 통해, 1913년 예수회를 통해 지원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교회에서는 매년 선교사들의 경비로 24달러 엔화로 약 24엔 정도를 지원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렇게 받은 지원금들이 학교 운영비로 사용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신성여학교는 제주 천주교의 핵심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적어도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13년에 기부받은 600엔은 이후 자본금 이야기가 나오는 1914년의 바로 전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학교 자본금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고 판단된다.

라쿠르 신부는 자금 확보를 위해 직접 외부에 지원금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미국에 계신 대주교님들과 주교님들께 보낼 편지의 초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편지와 제가 쓴 것들 속에 들어 있는 내용은 엄연한 진실입니다. 제주도로 답장을 보내 주십시오. 답장을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선교회에서 제게 200내지 300, 아니면 400엔을 빌려 줄 수 있습니까?¹¹⁴⁾

신성여학교 설립 1년 전인 1908년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살펴보면 주교를 통해 미국 선교회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908년은 학교 설립을 이미 계획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외부 단체를 통해 지원을 받으려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선 천주교 단체의 지원과는 다르게 라쿠르 신부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을 요청한 자금이라는 것에서 차이점이 있다.

이밖에 제주도 자체 내에서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아 교회 운영비로 활용하는데, 이 교회 운영비를 학교 운영비로 활용했을 가능성도 높다.

곡식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김 신부는 세금으로 가장 60피아스트르 어치를 얻었습니다. 그는 저도 모르게 또다시 70피아스트르 어치를 받았습니다.¹¹⁵⁾

11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4년 7월 22일, 135쪽.

114)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8년 5월 18일, 221쪽.

1904년 김원영 신부가 신자들로부터 세금을 받았는데, 현물의 형태로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세금은 천주교 운영에 필요한 돈을 신자들로 봉헌 받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교 초기 기록에 세금 문제가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신자 숫자가 부족 및 전교 부담으로 인해 현금을 안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제주교안 이후로 대부분의 신자가 목숨을 잃는 상황 속에서 봉헌금을 받는 것은 무리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04년경부터는 제주교안 이후 제주의 천주교 인식이 나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들이 끝났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매장지 장소는 서울의 명령에 따라 지정되고, 측정되었으며 허가가 났습니다. 보상금은 이자의 삼분의 일, 즉 1,055냥에 대한 420냥을 받았습니다. 이 액수는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 백성들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이자의 나머지인 삼분의 이는 내장원을 위해 공제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4년 전에 있었던 무시무시한 사건으로 빚어진 적대적인 인상은 제주도 사람들의 머리 속에서 아주 폭 넓게 고쳐졌습니다.¹¹⁶⁾

1904년 제주교안 사건이 마무리되고, 보상 및 피해자 매장 문제까지 해결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화한 제주도민들의 인식에 따라 천주교 측 입장에서도 본당 운영을 위해 현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선교 초기에는 천주교 확장을 통해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었다.

재정상의 문제는 걱정을 일으킬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지금은 공소가 생기는 것을 도와야 합니다. 교리 교사들도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임지에서보다도 아마 더 중요한 다른 비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서너 달을 관리할 만한 공소 돈도 없기 때문입니다. 십 년쯤 후에는, 우리는 아마 재정적인 면에서조차 다른 어떤 임지보다도 훌륭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견뎌야 하고 돈을 지출해야

115)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4년 4월 18일, 187쪽.

116)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4년 6월 7일, 195-197쪽.

합니다.¹¹⁷⁾

당장 재정문제를 생각하기보다 주임 신부가 부임하지 않은 성당인 공소를 늘리는 방향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지금 돈이 없더라도 공소를 늘리면 10년 뒤에는 재정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라쿠르 신부는 공소 확충과 신자를 확보를 통해 제주 천주교 재정 안정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소 신자들이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 내는 헌금을 공소전이라고 한다. 오늘날 본당 운영 경비로 매달 또는 매년 일정하게 내는 교무금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천주교 학교는 학비나 학교 운영 경비를 학생 측에 부담시킬 수 없어서 이 공소전에서 지출했다.¹¹⁸⁾ 이러한 사정은 제주교안을 겪은 제주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공소전 및 헌금의 형태로 신자들로부터 받은 본당 운영자금을 학교를 설립금 및 운영비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제주에서도 공소전을 받아 활용하는 기록도 찾아볼 수 있다.

다섯 달 동안 신부 집에는 집 보는 사람이 한 명 있을 뿐이고 그 동안 내내 신부, 복사, 마부 등이 먹고, 자고, 난방에 드는 비용은 신자들이 냅니다. 게다가 이 신부에게는 자신의 숙소를 유지하기 위해 여러 공소에서 보내오는 돈이 있습니다.¹¹⁹⁾

제주에서도 신부들이 사용할 돈으로 각 공소에서 공소전을 보내온 것을 알 수 있다. 라쿠르 신부는 제주 천주교의 중요 사업이었던 신성여학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위와 같은 방법들을 동원하여 자본금 마련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모은 신성여학교의 운영자금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라쿠르 신부의 1914년도 서한을 보면 신성여학교의 자본금과 그로 인한 이익금에 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친애하는 샤르즈비프 신부의 고집불통에 따라 사용된 자본금 3,000엔의 학교 수입은

117)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4년 7월 25일, 197-199쪽.

118) 전병구, 「전라북도 천주교의 근대 초등교육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68쪽.

119)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1904년 7월 22일, 135쪽.

올해 100엔이라는 3%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당해야 할 많은 다른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쉽게 얻은 돈이 아닙니다. 예년에는 6%의 이익을 봅니다.¹²⁰⁾

라쿠르 신부는 서한에서 신성여학교 자본금 3,000엔이 있고, 자본금을 바탕으로 한 학교 수입은 100엔으로 3%의 이익이 생겼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3%의 이익금은 충당해야 할 다른 경비를 제외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 말은 자본금에서 나온 이익금은 학교에서 충당해야 할 다른 경비로 사용하고도 남은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신성여학교의 재정 운영이 나쁜 손해를 보지 않는 건전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편, “예년에는 6%의 이익을 봅니다.”라는 대목에서 신성여학교는 1914년 이전에 3%의 두 배에 달하는 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1914년 이전에는 신성여학교의 재정 운영 상황이 더 좋았다고 풀이될 수 있는 기록이다. 자본금과 이익금에 대한 이야기가 1914년 12월 서한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아 이전에는 학교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학교 재정 상황이 악화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여학교의 재정이 갑자기 악화한 이유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선교사들이 전쟁에 차출되고, 라쿠르 신부가 목포 본당까지 맡게 되면서 재정을 나누어 썼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성여학교에 후원되기로 했던 예산지원까지 취소되며 재정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게다가 이 신부님은 우리의 후원자에게 목포에 학교를 하나 세우고 싶다고 말하며 우리 학교의 아름다운 단장에 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후원자가 우리 학교에 약속한 원조가 목포로 갔습니다.¹²¹⁾

신성여학교 후원자의 원조가 목포 학교 건립을 위한 원조로 돌아감으로써 신성여학교 추가 재정 지원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신성여학교는 초기에는 재정 운영이 원활했으나, 1914년 이후 재정 상황에 안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라쿠르 신부가 자본금 마련에 힘쓴 지 만 10년, 그리고 신성여학교 설립 5

12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4년 12월 29일, 281쪽.

12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4년 12월 29일, 281쪽.

년 동안 비교적 학교의 재정은 잘 운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1914년경에 들어서며 점차 신성여학교의 재정 상황이 악화하고 있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2) 학교 관리와 재정 지출

라쿠르 신부가 다방면으로 자본금 확보에 힘 쏟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받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국 천주교 선교사들의 서한을 살펴보면 당시 천주교인들의 경제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좀 더 훌륭한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당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주길 바라고 있습니다.¹²²⁾

우리의 신자들은 전반적으로 매우 가난합니다. 대부분 아무런 직업도 없어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가르칠 수가 없었으며,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도 학비로 쓰일 선불금이 없습니다.¹²³⁾

오랜 박해를 겪어오며 한국의 천주교 신자들은 가난한 이들이 많았고, 학교 운영비를 낼 여력이 없는 신자들이 많았다. 또한 신자들은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되 학교 운영은 본당에서 책임져주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주교에서도 학비를 신자들로부터 걷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학교 운영의 재정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학교를 세운 선교사에게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제주교안을 겪은 신성여학교의 상황 역시 다른 천주교계 학교들과 비교해보면 더 좋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라쿠르 신부가 재정 마련을 위해 동분서주했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렇다면 라쿠르 신부가 부담해야 했던 신성여학교의 재정적 지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신성여학교 지출에 관한 기록 역시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선교사들의 서한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122) 『뤼텔문서』 1890, 베르모렐 신부 서한, <추신>

123) 명동천주교회,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1집 서울교구연보(Ⅰ)』(1878-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315-316쪽; 황치헌, 「왕립 본당의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99-100쪽.

신성여학교 지출이 많았을 시기는 학교 설립 초기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는 설립 시 건물과 교육용품 등 기반 준비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

신성여학교 설립 초기 가장 큰 비용이 투입되었던 곳은 학교 건물 및 시설 확장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의 설립이 확정된 이후 라쿠르 신부가 제일 먼저 착수한 일도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학교 건물의 설립이었다. 이와 더불어 교사로 부임할 수녀들의 숙소를 확보하는 일도 필요했다. 제주에 파견된 수녀 교사들의 계약 조건 중 하나가 학교와 수녀원 건물의 준비였기 때문이다.¹²⁴⁾ 따라서 라쿠르 신부는 바로 수녀원 수녀들이 제주에 오기 전 미리 학교 건물과 수녀원을 마련하였다.

신성여학교 건물과 수녀원은 기존에 라쿠르 신부가 사용하던 제주 본당 사제관 인근에 있는 건물을 개조하여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 교구의 경리를 맡고 있던 비에모 신부가 1909년 9월 초 제주를 방문하여 학교로 사용될 각 건물이 용도에 적당한지 둘러보기도 하였다.¹²⁵⁾ 그리하여 준비된 학교 건물을 토대로 학교 인가를 받아 신성여학교를 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학교 건물로 사용된 사제관 인근의 건물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

학교는 현재 값으로 친다면 백 엔도 되지 않습니다.¹²⁶⁾

이미 학교로 활용되던 건물의 가격은 백 엔도 되지 않는다. 학교 설립 당시 인근 건물을 구매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제관 인근의 건물은 라쿠르 신부가 미리 사두었던 건물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학교 건물은 이미 확보되었고 신성여학교 또한 개교했지만, 라쿠르 신부는 학교 규모와 시설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개교 이후에도 계속해서

124)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91, 208쪽.

125) “주교님께 보내는 편지와 함께 서울의 수녀원장에게 편지를 써서 작년에 주교님이 정하신 조건으로 2명의 여선생을 뽑아주도록 부탁드립니다. 비에모 신부는 그 학교로 쓰일 집을 방문했고, 그의 새 용도에 적합한 몇 가지 정비를 하면 그 집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9월 5일, 231쪽).

126)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1월 4일, 237쪽.

학교 보수 및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라쿠르 신부는 신성여학교가 개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 건물과 수녀원을 개조하였다.

학교 건물과 수녀원을 개조하는 데 약 550엔을 지출했습니다. 제 나무에 대해 말하러 왔던 순검이 제가 대신 요구했던 큰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페네 신부와 김 신부가 제주에 처음 왔을 때 이 집을 그들에게 빌려 주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이 집의 지붕에다 매달을 던졌는데, 이 집 지붕은 그녀들의 부엌 지붕에 거의 닿을 정도입니다. 요컨대 저는 기다리고 있으며...¹²⁷⁾

신성여학교가 인가받은 이듬해 1910년 6월 550엔을 들여 학교 건물과 수녀원을 개조하였다. 기존 학교 건물이 100엔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꽤 큰돈을 들여 대대적으로 보수 공사를 한 것이다. 신성여학교와 수녀원 건물이 본래 학교와 기숙용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학교와 수녀원 용도에 맞게 바꾼 것으로 추정된다.

라쿠르 신부는 신성여학교 건물 보수에 그치지 않고 학교 건물 확장에도 힘을 썼다.

제 소나무 대신에 상청의 여학교를 위한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제가 영사관이나 통감부에까지도 편지를 써보겠습니다. 이 땅은 옛날에 좌수의 집으로 지금은 비어 있고 수녀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학교가 확장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¹²⁸⁾

수녀들의 거처인 수녀원 바로 옆 건물이 마침 비어 있어 그 건물을 사들여 학교를 확장하려 한 것을 알 수 있다. 학교 건물과 수녀원이 마련된 상황에서 라쿠르 신부가 추가 학교 건물을 원한 이유는 학교 기숙사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저는 오래전부터 저를 무척 보러 오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방을 하나 갖고 싶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그 들을 가르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거의 모든 물자들을 갖고 있지만, 이 집을 짓기 위해 아직도 200내지 250엔과 다른 물건들이

127)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6월 10일, 251쪽.

128)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1월 4일, 237쪽.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제게는 한 푼도 없으니, 이런 방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일 년 내내 금주하고 금욕할 것입니다.¹²⁹⁾

목포 부윤이 나무에 대해 제게 제안을 해서 저는 그에게 우리 학교 옆에 있는 집 ‘향청’과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 그것을 수녀원이나 학교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200엔이 필요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숙하러 이곳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녀들에게는 관립 학교의 문을 닫고 그녀들을 수녀원에 맡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¹³⁰⁾

라쿠르 신부는 자신을 보고 싶어 찾아오는 젊은이들을 위한 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숙하러 올 수 있는 건물을 원하였다. 라쿠르 신부의 서한에서 이러한 내용이 등장하는 이유는 신성여학교가 당시 제주城内에 자리 잡고 있다 보니 성 밖에 사는 비교적 먼 곳의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결국 신성여학교는 기숙사까지 갖춘 학교가 되었다.



<그림 2> 신성여학교 건물 사진¹³¹⁾

129)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12월 20일, 259-261쪽.

13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1년 3월 23일, 265쪽.

수녀님들은 그들의 학교에 대해 무척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라쿠르 신부가 그녀들에게 작은 기숙사 하나를 만들어 주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¹³²⁾

1912년 타케 신부의 서한을 보면 라쿠르 신부가 수녀들에게 작은 기숙사 하나를 만들어 주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선교사의 서한 흐름상 수녀원 옆 건물을 인수하여 기숙사로 사용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신성여학교는 학교 건물과 수녀원, 기숙사 등 학교 건물에 지출한 비용은 적어도 900엔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성여학교에서 사용한 교육용품까지 포함하면 학교시설에 들어간 비용은 더 추가될 수 있다. 봉제 시간에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재봉틀, 음악 시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풍금 등 신성여학교의 옛 사진을 보면 당시 사용했던 교육용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른 사진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의 모습에서도 학교 용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

131) 신성여학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13쪽.

132) 1912년이라고 표시된 라쿠르 신부의 서한에 같이 기록되어 있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타케 신부', 271쪽).



<그림 3> 유아반 수업시간 사진¹³³⁾



<그림 4> 초급반 수업시간 사진¹³⁴⁾

133) 신성여학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1쪽.

134) 신성여학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1쪽.

신성여학교 수업 사진을 보면 수업을 위해 필요한 칠판부터 학생들이 책을 올려 놓는 책상 그리고 의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성여학교 학생 숫자가 50~70여 명이었던 것으로 생각하면 학생들의 숫자만큼이나 사진에서 보이지 않는 교육용품들이 더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정숙의 회고록을 살펴보면 신성여학교 설립 초기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나누어주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것들로 종합하여 생각해 볼 때, 신성여학교에서 사용했던 교육용품의 비용이 제법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신성여학교에서 지출의 큰 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되는 구성원 비용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구성원 비용에는 학생 개인마다 들어가는 학교운영비와 교사운용에 필요한 교사월급이 있었다. 학교운영비를 짐작할 수 있는 다른 지역 천주교 학교 자료가 남아있다.

1892~93년 3개 학교 운영 금액 : ‘차돌백이’ 학생 10명 40냥, ‘석장리’ 학생 5명 25냥, ‘되재’ 학생 3명 15냥¹³⁵⁾

1893년 선교사의 서한을 살펴보면 당시 운영되던 천주교 학교의 학교 운영 금액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는 당시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3개 학교의 학생 당 운영 금액이 표시되어 있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학생 한 명당 4~5냥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운영비는 학용품 및 교과서, 학교운영비 등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학교와 신성여학교는 차이가 있겠지만 이 수치를 근거로 계산해본다면 신성여학교의 50~70명가량의 학생 운영비는 적게는 200~280냥 많게는 250~350냥 정도로 생각된다. 이 수치를 신성여학교 운영 당시 통용 화폐인 엔화로 환산하면 적게는 약 31~43엔 많게는 약 38~54엔 정도의 학생 운영비가 들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월급 지불 금액도 지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운영된 천주교 학교들도 교사 채용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135) 뮌텔, 『뮌텔 주교 일기 1 : 1890-189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1893년 우도신부 서한.

이 학교에 다니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이제 자신들의 양식을 구하는데도 대단한 곤란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 선생들의 월급을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 우리의 처지가 참 딱하게 되었습니다.¹³⁶⁾

그러나 초기의 열성이 식어지고, 그래서 흔히 선교사들 자신이 학교 유지의 무거운 부담을 겪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걱정거리가 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교사를 구하기 어려운 것에서 오는 것인데, 그래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교사들을 고용하면서 인건비는 비싸게 지불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¹³⁷⁾

학교를 설립한 선교사들은 가난한 학생들에게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교사의 월급 지불을 걱정하였다. 학교 유지의 심각한 걱정거리 중 하나가 교사 고용비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민은 신성여학교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성여학교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로부터 교사 수녀를 두 명 지원 받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역시 신성여학교 교사로 부임하는 수녀의 봉급 및 생활비 모든 부분을 라쿠르 신부가 지원하였다. 샬트르 성 바오로 소속 수녀가 파견될 때에는 각 본당과 수녀가 직접 계약하여 파견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샬트르 수녀회 수녀의 기본 계약 조건은 수녀 생활비로 매월 6원씩을 지불하는 것이었다. 6원을 당시 화폐인 엔화로 환산하면 약 9엔이다. 따라서 두 명의 수녀의 생활비는 약 18엔 가량이고 1년 봉급으로 약 216엔가량이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생활비 이외에 땀감과 채소 등 부식물을 부담했으며, 수녀들이 본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避靜¹³⁸⁾에 참가하기 위한 여비와 새로 만들어 입는 옷값도 라쿠르 신부가 부담하였다.¹³⁹⁾ 두 명의 수녀 교사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 교사를 고용하는 것보다는 상황이 좋은 편이었다.

장연학교를 위해 수녀들을 초청코자 합니다. 선생들을 위한 한 달 경비가 28원인데

136) 뫼텔, 『뫼텔 주교 일기 4 : 1906-191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1909년 8월 23일 베르모렐 신부 서한.

137)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78쪽.

138) 피정; 성직자·수도자·신자들이 자신들의 영신생활에 필요한 결정이나 새로운 쇠퇴를 위하여 어느 기간 동안 일상적인 생활의 모든 업무에서 벗어나, 묵상·성찰·기도 등 종교적 수련을 할 수 있는 조용한 곳에 머물다 오는 것을 뜻한다.

139)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208쪽.

그 경비를 가지면 수녀 둘과 선생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¹⁴⁰⁾

필요한 것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여자 교사들이 수녀보다 3배의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수녀들 대신 여교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¹⁴¹⁾

비슷한 시기 한 달 28원의 경비로 수녀 두 명과 일반 교사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수녀 둘의 한 달 경비가 12원으로 보면, 일반 교사의 한 달 경비는 약 16원으로 판단된다. 이 계산으로 볼 때, 일반 교사 경비는 수녀 교사 경비에 2.5배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교사의 경우에는 수녀 교사보다 3배의 월급을 필요하였다. 따라서 라쿠르 신부는 수녀 교사를 신성여학교에 교사로 두면서 상당한 교사 경비를 아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성여학교에는 수녀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평교사인 남교사들도 있었다. 1912년경부터는 많게는 3명에서 적게는 1명 정도는 평교사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3학년 때에 들어오신 고성보, 고원봉, 홍두표 선생님 등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망국 민족의 설움에 대한 말씀 등은 기억에 생생하다.¹⁴²⁾

수녀들은 최고의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남자 선생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있는 남자 선생은 돈을 너무 바라고 적격자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권위도 없습니다. 또 수녀들의 마음에도 매우 안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을 구하고 있습니다.¹⁴³⁾

신성여학교 설립과 동시에 입학한 최정숙이 3학년이 되던 1912년부터 남교사의 언급이 시작된다. 또한 1915년에는 한 명의 교사만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채용된

140) 김명제, 1916년 12월 3일 서한(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365쪽 재인용).

141)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244쪽.

142) 최정숙, 「가시밭길을 걸어온 신성」, 『신성』 6, 1969(신성여학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71쪽 재인용).

14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김양홍 신부', 1915년 7월 13일, 163쪽.

남교사들이 꾸준히 가르치던 것이 아니라 자주 교체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평교사의 한 달 경비를 25엔 정도로 보면, 적게는 25엔 많게는 75엔 정도의 경비가 평교사 임금으로 지불되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신성여학교는 학교 설립 초기 학교 건물 매입 및 보수 확장과 기자재 구입 등의 비용으로 상당한 지출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후 학생 운영비, 수녀 교사 채용, 평교사 채용 등 인건비를 비롯한 유지비 역시 꾸준히 지출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보았던 신성여학교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1909~1914년 신성여학교 재정 수입 및 지출¹⁴⁴⁾

수입				
초기 자금	4.5엔			4.5엔
외부 단체 지원금	선교회	예수회	전교회	771엔
	27엔	600엔	1년 24엔 약 144엔	
외부 지원 요청금	?			?
본당 헌금 및 공소전	?			?
			총 금액	775.5+?엔
지출				
학교 건물비	900엔 이상			900엔
기자재비	?			?
학교 운영비	1년 31~54엔, 186~324엔			186~324엔
교사 운용비	수녀교사 (1달 18엔)	남교사(1달 25~75엔)		1098~1998엔
	648엔	450~1,350엔		
			총 금액	2,184+?~3,222+?엔

3. 학교 운영의 성격과 구성원

1) 신성여학교 학제와 교육내용의 성격

신성여학교의 교육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학교의 운영 성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중 하나는 학제 편성이다. 그 동안 신성여학교의 학제는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과 같은 어떤 급의 학교로 정

144) 신성여학교 설립부터 1914년까지 약 6년간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표로 나타냈다.

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 이유는 유아교육부터 초등 및 중등교육 그리고 야간반 운영까지 다양한 급의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를 보면 “신성여학교가 1909년 10월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신성여학교가 초등 과정 4년, 중등 과정 1년 편제로 탄생했다”고 언급하며 신성여학교 학제를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등장하는 초등과정 4년, 중등과정 1년의 근거는 최정숙의 회고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부친의 손에 이끌리어 불국인 구마슬 신부가 사제로 세운 신성여학교에 다른 아이들처럼 우리나라이로 8살에 입학했다. 설립초기 이 학교의 수준은 유아 및 보통학교 초급반 수준이었고, 학교가 성장하면서 초등과정과 4년과 중등과정 1년으로 정비되었다.¹⁴⁵⁾

최정숙의 “초등과정 4년과 중등과정 1년으로 정비되었다”는 말을 학교의 학제로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정숙의 회고 이외에 라쿠르 신부의 서한이나 다른 선교사 서한에서 신성여학교의 학제에 대해 명확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학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신성여학교가 초등과정 4년과 중등과정 1년으로 정비되었던 것은 학교가 설립되고, 얼마간 시간이 지난 후의 일이다. 또한 초등과정 4년과 중등과정 1년이 전부는 아니었고, 그 과정 또한 꾸준히 유지되었던 학제인지는 의문이 남는 점이 있기 때문에 신성여학교의 학제를 초등과정 4년과 중등과정 1년으로 확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회고에서 말하는 중등과 1년은 신성여학교 출신의 학생이 중등학교로 진학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추가로 설립된 과정으로 생각된다. 대표적으로 최정숙의 경우가 그러했는데, 최정숙은 자신의 회고에서 신성여학교에서 중등 1년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서울의 진명여고보에 진학할 때 2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었다.¹⁴⁶⁾ 따라서 중등과 1년 과정은 진학에 뜻이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성여학교 개교 이후 시간이 흘러 추가 운영된 교육과정 형태로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신성여학교에서 야간반이 운영되었다는 기록도 있다. 신성여학교 2회 졸업

145) 최정숙, 「내가 걸어온 길」, 『제남신문』, 1973년 9월 18일 기사.

146)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49쪽.

생이었던 허요안나의 회고에 의하면 유아반과 야간반이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⁴⁷⁾ 그러나 라쿠르 신부의 서한에는 야간반 이야기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다만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신성여학교가 개교하기 이전하고 있던 공부를 마치기 희망한다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다.¹⁴⁸⁾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야간반의 실체 또한 명확하지 않고 존재했다 하더라도 특별반 형식의 교육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아반과 초등교육은 설립 초기부터 폐교 이전까지 꾸준히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숙을 비롯한 신성여학교의 졸업생들의 회고에서 신성여학교 설립 초기 학제를 유추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림 5> 라쿠르 신부 송별 사진¹⁴⁹⁾

구 신부님과 엄 신부님께서는 당시 대중의 몽매함이 철야 같아 남자의 신교육도 유위적요였것만 특히 한국여성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시어 우리 신성여학교를 세우시고 유치원 보통과 보습과 등을 설치하여 제주여성의 첫 계몽을 해주시어...¹⁵⁰⁾

147) 허요안나, 「나의 모교 신성학교」, 『제주신문』, 1952년 5월 12일 기사.

148)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09년 10월 20일, 233쪽.

149)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16쪽.

150) 김서옥, 「먼 옛날의 모교 회상」, 『신성』 창간호(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75쪽, 재인용).

신성여학교는 유치원, 보통과, 보습과 등 유아 및 초등교육 중심의 학교로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성여학교 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학생들의 나이를 추측할 수 있다. <그림5>의 라쿠르 신부가 떠난 1915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 그리고 앞서 본 <그림 3~4>의 유아반 및 초등반 사진으로 볼 때, 신성여학교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학생은 유아·초등 수준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여학교가 제주 최초의 여학교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나이를 보고 수업의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학교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성여학교가 유아 및 초등교육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당시 한국 천주교의 전반적인 교육흐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개항 이후 개신교에서는 이미 초등학교부터 중학교와 전문학교까지 운영하는 교육제도를 마련하였다. 배재와 이화학당 등은 물론이고 전주 신흥학교와 기전여학교도 첫 졸업생이 배출되자 중등과정을 신설하여 진급시켰다. 그중 일부는 고등교육 과정까지 확대하여 전문학교가 등장하였다. 1906년에는 윤치호가 인천에 실업학교인 한영서원을 설립하고 미국인 교수를 초빙하여 목공과 기계공업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주교에서 운영한 중등학교로는 통감부시기 말에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에서 설립한 공업학교인 승공학교와 사범학교인 승신학교가 있었다. 하지만 곧 폐지되어 명맥을 잇지 못하였다. 이후 천주교는 일제강점기 동안 서울, 대구, 원산에 신학교 3개만을 운영하였을 뿐 전국적으로 서울 동성상업학교 외에는 어디에도 중등학교가 존재하지 않았다.¹⁵¹⁾ 천주교는 재정적인 여건과 교리적 특징 때문에 중등학교나 대학교에는 많은 투자를 하지 않았다. 제주에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오히려 중등과정을 도입한 것은 학교가 잘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이러한 근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신성여학교는 유아 및 초등교육의 성격을 가진 학교였고, 학교 운영에 유연성을 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신설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여학교의 또 다른 교육 형태의 특징은 여성의 교육을 위해 세워진 학교였다는 점이다. 한국 여성의 중등교육을 위한 「고등여학교령」이 발표된 것은 1907년의 일이었는데, 이것은 근대교육이 전래한 이래 처음으로 제정된 여자를 위한 교육법

151) 전병구, 앞의 논문, 2017, 53-54쪽.

령이었다.¹⁵²⁾ 이전까지 여자를 위한 중등학교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초등교육기관을 위한 조처까지도 없었다. 따라서 종래의 소학교나 보통학교도 모두 남아를 위한 것이었다.¹⁵³⁾ 이러한 상황은 제주 역시 마찬가지였다. 신성여학교 이전에 제주공립 보통학교가 세워졌지만, 여학급을 둔 것은 이후의 일이었다. 따라서 제주에는 여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없었다.

이처럼 제주를 비롯한 한국에 여성교육기관이 없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의 분위기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 시대의 여성 교육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정부에서 학교 몇을 지금 시작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나, 계집 아이 가르치는 학교는 없으니, 정부에서 백성의 자식들을 교육할 때, 어찌 남녀가 층등이 있게 하리오. 계집 아이들은 조선 아이가 아니며, 조선 인민의 자식 되기는 일반 이어 늘, 오라비는 정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권이 있으되, 불쌍한 계집아이는 집에 가두어 놓고 가르치는 것은 다만 사나이에게 종노릇 할 직무만 가르치니, 우리는 그 계집아이들을 위하여 분히 여기노라. 정부에서 사나이 아이들을 위하여 학교 하나를 세우면, 계집아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를 짓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¹⁵⁴⁾

지난 사제 피정 때의 화합에서 이 신부들은 한국의 많은 여자들은 12단을 배울 수 없고, 세 가지 문답의 글자도 모른다고 하면서, 그들 자신은 읽을 줄도 모르고, 주변에 여교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글을 아는 여자들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남자들한테 배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많은 비신자 여자들은 스스로 구원을 위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¹⁵⁵⁾

「독립신문」의 기사를 보면 같은 조선의 자녀들이지만 여성을 위한 학교는 없고, 여성은 집에 가두어 가르치며, 남성을 위한 종노릇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고 있음을 한탄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또한 선교사의 서한을 보면 여성들은 글을 모르고 그렇

152) 정부가 여자교육기관을 두기로 결정하는 데는 기독교 선교사들의 자극이 컸다. 선교사들은 일찍부터 여자교육기관을 세우고 그 교육에 노력한 결과로, 한국의 여자교육은 그들에 의하여 독점되어 있는 상태이었다. 그러므로 정부로서도 언제까지나 여자교육을 외국인에게 맡겨 둘 수 없었다.

153) 오천석, 앞의 책, 2014, 134-135쪽.

154) 『독립신문』, 1896년 5월 12일 기사.

155) 이종홍 역, 『안세화 주교 공문집』, 천주교 대교구, 2003, 124-125쪽.

다고 남자들에게 배울 수도 없었다는 한국 여성들의 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한국 여성들은 교육에 있어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에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성여학교는 제주 여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의 장이었으며, 여성을 사회의 한 일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 여성들은 당장 글도 배우지 못하고 주변에서 글도 배울 수 없는 처지였기 때문에 이러한 여성들을 상대로 처음부터 중등교육을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신성여학교는 제주의 여성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여학생들의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적인 수준의 교육을 가르치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학교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다면 기초적인 수준의 여성교육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던 신성여학교에서는 어떤 교육내용을 가르쳤을까? 신성여학교에서 가르친 교육내용은 명확하게 남아있지 않다. 다만 다른 천주교 여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과 여러 신성여학교 기록을 종합하여 추정해볼 수 있다. 우선 같은 시기 운영된 다른 지역 천주교 학교 교육내용을 보면 천주교 입교를 위한 교리 교육과 함께 국문, 한문, 산술, 역사, 지리 등 근대 학문과 바느질, 청소, 세탁, 육아법, 자수, 직물 등의 생계교육을 가르쳤다는 기록이 있다.¹⁵⁶⁾ 이것으로 미루어 볼 때 기본적인 근대 학문을 비롯한 한글, 그리고 여성에게 필요한 생계교육을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천주교 여학교에서 생계교육을 교육내용에 포함한 이유는 경제적 원인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본적으로 천주교는 재정이 부족했고, 천주교가 오랜 기간 박해를 받아와 어려운 처지의 신자가 많았다. 따라서 대부분의 천주교 학교는 학비나 학교 운영 경비를 학생 측에 부담시킬 수 없었다.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는 부모들도 경비는 교회에서 맡아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천주교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업을 갖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므로 이 아이들에게는 그들을 도우며 지도해 줄 활동이 필요하며, 그들을 위해 돈을 벌 수 있고 동시에 천주교 공동체 전체에게도 명예로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시키는 학교가 필요합니다.¹⁵⁷⁾

156) 『경향신문』, 「새 녀학교 광고」, 1908년 6월 12일 기사.

이와 같이 천주교 재정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천주교의 재정 확보와 학생들의 자립을 위해서는 생업교육이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당시만 하더라도 생업수단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생업교육이 더 필수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⁵⁸⁾ 이러한 천주교인들의 경제적 상황은 신성여학교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지만 신성여학교에서 생업교육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비록 초등교육이 중심이 된 신성여학교였지만, 라쿠르 신부와 수녀 및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드망주 주교의 1912년 보고서와 당시를 기록으로 남긴 사진에서도 신성여학교 교육내용을 추정할 수 있다.

교회로 사용되는 아주 작은 방에서 오르간에 맞춰 소녀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 그들 학교의 60명의 학생들 중 대부분은 교리문답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내용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¹⁵⁹⁾



<그림 6> 풍금 연주 사진¹⁶⁰⁾



<그림 7> 봉제 시간 사진¹⁶¹⁾

157)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315-316쪽.

158) 윤병훈, 앞의 논문, 2008, 137쪽.

159)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연보 1878~1940』,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 編; 교회사연구소, 1984, 27쪽.

160)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19쪽.

161)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19쪽.

신성여학교의 수업 사진들을 보면 음악 수업과 봉제 수업을 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래 봉제 수업 같은 경우는 당시에 고등교육에 해당하는 수업으로 분류되어 있었다.¹⁶²⁾ 따라서 신성여학교에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것을 가르치려 노력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가하면 라쿠르 신부의 서한에서 “방학 때는 교회 마당에서 정구장을 설치해 놓고 남녀 학생들이 어울려 소란스런 만세소리를 되풀이하며 정구를 쳤다”¹⁶³⁾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아 정식 교육내용은 아니더라도 정구를 배웠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제주에 정구코트가 처음 선보인 것이 1912년 제주공립농업학교 코트이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신성여학교에도 정구가 소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정구 효시가 1908년이었음을 감안할 때 신성여학교의 정구는 비교적 빠른 시기 소개된 운동과목이었다.¹⁶⁴⁾

이처럼 신성여학교는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생계형 여성 교육이 이루어졌지만, 같은 급의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예술과 스포츠 등 비교적 다양한 교육을 시도했던 것을 알 수 있다.

2) 학교 구성원과 특징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것은 라쿠르 신부였지만, 실제 학교 수업은 라쿠르 신부가 하지 않았다. 이는 천주교의 교리적 특성 때문이었다. 1875년 베르뇌 주교의 사목교서에는 천주교에서 행하는 교육에 대한 천주교 측 교령이 담겨 있다. 이 사목교서는 1803년 중국에서 열린 ‘쓰촨 대목구 시노드’ 교령을 따른 것이었다.

선교사들은 소녀 학교에 결코 혼자서 들어가지 말아야한다. …소녀들의 학교에 최소한 25세의 나이를 채우지 못한 여선생을 채용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된다. … 일시적으로 남자들 가운데 어떤 이라도 그 소녀들에게 접근이 허용되지 않게 하는 안전한 집들이…¹⁶⁵⁾

162) 『천주교회보』, 「대구해성여자학원 고등과 모집 광고」, 1392년 6월 1일자 기사.

16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2년 12월 30일, 273쪽.

164) 양진건, 앞의 논문, 1997, 439쪽.

165) 장신호 옮김,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208-209쪽.

교령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서를 고려하여 선교사들이 소녀 학교를 혼자서 방문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녀학교 교사는 여자를 채용하며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몸가짐을 조심해야 하고 소녀학교에 남자들이 드나들어 일반인들로부터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명령하였다.¹⁶⁶⁾

이와 같은 천주교의 교령에 의해 라쿠르 신부 역시 신성여학교 수업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 대신 신성여학교 교사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파견되었다. 학교에 파견된 수녀들은 라쿠르 신부의 요청으로 서울에 있는 본원에서 파견된 것이었다. 샬트르 수녀회에서 파견된 수녀는 김 아나다시아 수녀와 이 곧자 수녀 두 명의 한국인 수녀들이었다. 이 두 명의 수녀들은 샬트르 수녀회에서 교육 사도직¹⁶⁷⁾으로 봉사하고 있던 수녀들로 샬트르 수녀회에서 자체적인 교육훈련을 받은 교사들이었다.¹⁶⁸⁾

몇 년 전만 해도 거의 불가능했던 여학교가 오늘날에는 유행입니다. 여교사를 얻기 위해 우리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들에게 청을 했고, 그들은 수녀원의 한국 수녀들을 교사로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요청하는 곳에 두 명씩 가게 될 것인데 아주 훌륭한 성과가 기대됩니다. 금년 가을에야 지방에 수녀들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과 제물포에만 있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성 바오로 수녀들이 한국에서 하는 봉사활동의 범위를 배가시킬 것입니다.¹⁶⁹⁾

이미 한국 천주교에서는 여학교의 교육을 위해 수녀들을 교사로 양성하고 있었고, 1909년에 이르러 지방에 수녀 두 명씩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천주교에서는 여학교를 위한 수녀의 교사 양성 작업이 이미 준비되고 있었고, 신성여학교가 그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된 것이었다.

166) 전병구, 앞의 논문, 2017, 42-43쪽.

167)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사도직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여 창설된 사도적 활동 수도회이다. 샬트르 수녀회의 사도직은 총 4가지로 사회사업 사도직(고아원), 의료 사도직, 교육 사도직, 본당 전교 사도직으로 나뉜다. 교육 사도직은 본래 고아 교육에서 발전하여 외교인의 교육까지 그 범위를 넓히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도직이다. 본격적인 교육 사도직 수녀들을 양성하여 1909년 지방으로 수녀들을 파견하였다(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195-206쪽).

168) 양진건, 앞의 논문, 1997, 430-432쪽.

169) 「파리의방전교회 연말보고서」, 1909.

신성여학교가 수녀들을 교사로 택한 이유는 천주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수녀들을 교육사업에 뛰어 들 수 있도록 교육하고 지방에 보낸 배경이 있지만, 또 다른 이유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여학생들을 가르치기에 당시의 인식으로 볼 때 여교사가 가르치는 편이 수월했다는 점이 있다.

특히 수녀님의 신성하고 고결한 인품과 자애로움을 동경하여 나도 수녀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¹⁷⁰⁾

봉건사상이 깊은 사회 체제 속에서 여자가 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꽤 어려웠고, ‘남녀 칠세 부동석’이란 유교 사상이 지배하던 때여서 여학교를 세워 학생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은 뒤에 들은 이야기다.¹⁷¹⁾

최정숙의 회고록에 따르면 여학생들에게 수녀는 좋은 이미지로 비추어졌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학생들을 모집하는 차원에서 보아도 여교사가 있는 편이 학생 모집에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수녀들의 봉급은 당시 교사들의 수준에 비추어 봤을 때 월등히 저렴하였다.

장연학교를 위해 수녀들을 초청코자 합니다. 선생들을 위한 한달 경비가 28원인데 그 경비를 가지면 수녀 둘과 선생 하나를 둘 수 있습니다.¹⁷²⁾

필요한 것은 자격증입니다. 자격증을 가진 여자 교사들이 수녀보다 3배의 월급을 받고 있으므로 수녀들 대신 여교사를 고용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학교에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¹⁷³⁾

일반 교사를 위한 경비에 비하면 수녀의 경비는 상당히 저렴한 편이었고, 최소한의 생활비 이외의 보수는 받지 않았다.¹⁷⁴⁾ 게다가 수녀들은 열의와 헌신으로 교육에

170)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44쪽 재인용.

171) 최정숙, 앞의 글, 1973.

172) 김명제, 1916년 12월 3일 서한(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365쪽 재인용).

173)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244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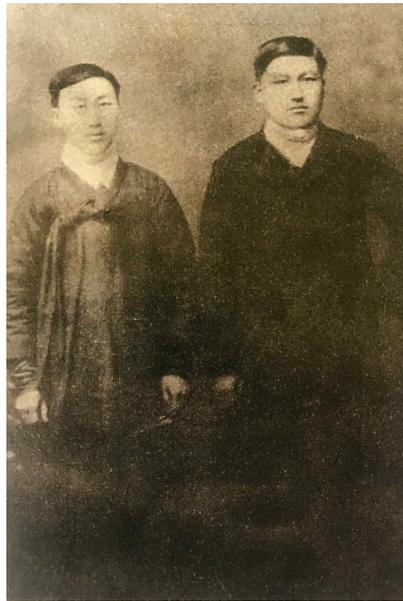
174)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앞의 책, 1991, 365쪽.

임했고, 성영희 고아원이나 아동 복지 차원의 지원까지 맡아줄 수 있었다. 신성여학교 재학생이었던 김서옥도 “두 수녀님들이 가정이 곤란한 학생을 서너 명이나 집안에 두시어 의복, 식사까지 돌보아 주고 학교에도 보내어 주시었다”라고 말한 것¹⁷⁵⁾ 등으로 보아 여러 의미에서, 없어서는 안 될 교사 자원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성여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여교사인 수녀 외에 남자 교사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최정숙의 회고에 따르면 남자 교사는 고성보, 고원봉, 홍두표 등이 있었다.¹⁷⁶⁾ 이 남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지만, 신부와 수녀들에게는 마음에 드는 교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녀들은 최고의 교사들입니다. 그러나 남자 선생은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남자 선생은 돈을 너무 바라고 적격자도 아니고 학생들에게 권위도 없습니다. 또 수녀들의 마음에도 매우 안 듭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을 구하고 있습니다.¹⁷⁷⁾

선교사 서한에는 남교사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남교사의 고용비가 비싸며 학생들에게 권위가 없는 점, 또 수녀 교사들에 마음에 들지 않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그림 8> 남교사 사진¹⁷⁸⁾

175)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76쪽 재인용.

176) 최정숙, 앞의 글, 1969.

177)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김양홍 신부’, 163쪽.

178) 왼쪽부터 고원봉, 홍두표 선생(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쪽).

재학생이었던 최정숙의 회고에 따르면 “남교사들은 민족정신을 고취시키고 망국 민족의 설움에 대한 말하기도 하고, 땅위에 제주도 모형을 그리고 애향심을 말했다”고 한다.¹⁷⁹⁾ 이것으로 미루어 남교사들은 민족주의 정신으로 신성여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성직자였던 신부 및 수녀들은 선교의 관점에서 교사를 바라보았을 것이기 때문에 서로의 교육사상이 맞지 않아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밖에 정규 수업은 아니지만 신성여학교를 설립한 라쿠르 신부도 간접적으로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려고 했던 기록도 남아 있다.

나무로 공을 깎고 여러 모양의 놀이기구를 손수 만들어 청소년에게 건전 오락을 가르쳐 주셨다. 커다란 종이에 깨알같은 글자와 사진이 실려 있는 것을 읽어 주고 보여 주었을 때 신문이란 것을 처음 알았다. 기껏 배추와 무, 미나리, 마늘, 고추 정도밖에 몰랐던 우리에게 양배추, 일년감, 감자, 시금치, 양파, 건대나물 같은 야채 씨를 가져다 가꾸는 일과 요리법을 가르쳤다. 정원에는 지금의 교재 과원 같은 것도 만들어 그때도 사과, 배, 감, 포도, 살구, 앵두, 딸기 등을 심어 가르쳐 주었고, 장미, 백합, 수국, 수선화, 옥잠화, 국화 등의 꽃씨와 꽃묘를 어디서 가져 오셨는지는 몰라도 잘 가꾸어 꽃꽂이와 축일 때 또는 손님에게 꽃다발을 만들어 드리는 일을 가르쳐 주셨다. 오늘날 사는 분들에게는 조금도 신기할 것이 못되지만 60년전 이 땅엔 이것이 다 새로움이였다.¹⁸⁰⁾

라쿠르 신부는 학생들에게 놀이기구 제작, 신문 읽어주기, 야채 및 채소 재배법과 요리법 등을 알려주었다. 또 과일과 꽃 등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런 라쿠르 신부의 가르침은 당시 학생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새로운 가르침이었다. 이처럼 신성여학교에서는 정규 수업 외에 라쿠르 신부를 통해 근대 문화와 지식들을 배웠던 것을 알 수 있다.

신성여학교의 구성원 중에는 가르침을 받던 학생들도 있었다. 초기 신성여학교의 입학생은 두 부류가 있었다. 하나는 성영회 소속 고아원에 있던 학생들이고, 다른

179) 최정숙, 앞의 글, 1969.

180) 최정숙, 앞의 글, 1969.

한 분류는 신자들이 아닌 비교인의 자제들이 입학한 경우였다. 성영회 소속 고아원에서 자라 신성여학교에 입학한 대표적인 사례로 강평국이 있었다. 강평국은 애월읍 광령리 출신으로 강두훈의 3녀로 태어났다. 그녀의 부친 강두훈과 모친 홍소사는 1901년 제주교안에 휩쓸려 순교하였다. 당시 강평국은 2세에 불과했고, 고아가 되자 천주교에서 강평국을 받아들여 키웠다. 그리고 1910년 신성여학교가 개교하자 바로 입학하여 1915년 3월에 제1회로 졸업하게 되었다.¹⁸¹⁾

강평국과 같이 고아원 출신의 신성여학교 학생이 더러 있었지만, 외교인이 더 많았다. 최정숙의 회고에 의하면 개교 당시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에 처음으로 라쿠르 신부가 여학교를 세워 아버지인 최원순 검사와 같은 유지들을 찾아다니며 딸들을 보내주도록 간청했고, 서울에서 수녀 두 분을 초빙하여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학생들을 모집, 교과서와 학용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면서 공부를 시켰다.¹⁸²⁾

성영회 고아원 소속 여학생들로 채워지지 않은 정원은 외교인 여학생들을 찾아다니며 입학시켜 채웠다. 처음에는 학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는 외교인들이 스스로 신성여학교에 보내기도 했다.

이 학교는 현재까지 좋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의 외교인들도 거의 모두가 그들의 딸들을 공립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학생은 70명으로 거의가 다 외교인이지만 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¹⁸³⁾

선교사의 기록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외교인이었고, 읍내의 외교인들이 공립학교보다 신성여학교에 딸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신성여학교에 대한 평가가 괜찮았던 것으로 보인다. 최정숙이 남긴 교지에 따르면 몇 년 후인 1920년의 일이지만, 당시 제주공립보통학교를 다니던 여학생이 8, 9

181) 김찬흡, 앞의 책, 2000, 62-63쪽.

182) 최정숙, 앞의 글, 1973.

18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김양홍 신부', 1915년 7월 13일, 163쪽.

명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신성여학교 학생 수와 비교해 보면 신성여학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신성여학교는 단순히 종교계 학교를 뛰어넘어 제주의 여아들에게는 교육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성여학교의 평판이 좋아지자 제주읍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자원하여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다음의 기록을 보면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던 학생들에게도 신성여학교는 매력적인 학교였음을 알 수 있다.

성내에 여학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이나 공부하기를 동경하던 나는 아버지를 조르고 졸라, 드디어 아버지 승낙을 얻어 고향인 모슬포에서 성내까지 아버지와 함께 여러 날을 걸어서 마침내 신성여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학생이라고 해야 몇 십 명도 안 되었으므로 합반을 하여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었고 특히 기숙사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었는지 모른다.¹⁸⁴⁾

모슬포에 살던 어린 시절 고수선은 서귀포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성내에 있던 신성여학교를 자발적으로 찾아 입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수선과 같이 먼 곳에 거주하던 학생들이 신성여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성여학교에서 기숙사를 운영했기 때문이었다.

184) 고수선, 「남자들도 공부하는 일이 죄스럽던 시절」, 『신성』 6, 1969(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74쪽 재인용).

IV. 신성여학교 폐교와 재개교 활동

1. 학교 폐교의 원인과 제주 지역 공소화

1) 일본의 「사립학교규칙」 개정과 폐교 원인 재고

1909년 설립된 신성여학교는 1914년까지는 큰 문제없이 운영되었고, 규모도 점차 신장하였다. 하지만 1916년 설립 7주년 만에 신성여학교는 폐교하게 되었다. 비교적 잘 운영되어 오던 신성여학교의 갑작스러운 폐교 원인을 기존의 연구에서는 일본의 탄압에서 찾고 있다. 일본의 종교학교에 대한 방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신성여학교 폐교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몇 가지 의문이 남는다. 따라서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으로 지적되는 일본의 탄압을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

한일강제병합 이후에도 별문제 없이 운영되어오던 천주교계 학교들은 1915년 일본의 교육정책이 변하면서 사정이 바뀌었다. 총독부는 사립학교를 통제하기 위해 1911년 「사립학교령」을 한 차례 개정하여 「사립학교규칙」을 만들었다. 그러나 종교학교가 민족주의적 움직임을 보이자 불안함을 느낀 총독부는 1915년 또 다시 대대적으로 「사립학교규칙」을 개정하여 해당 법을 강화하였다.¹⁸⁵⁾ 총독부는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면서 규칙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조선교육령 실시의 초기에 있어서는 각종 사립학교 중 그 교과 및 과정이 적절치 못한 것이 많았지마는, 당시 관공립학교 및 기타 制規의 학교가 아직 보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들 사립학교에 대하여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피하기 위하여, 잠시 교과 및 과정에 대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점차로 그 개선을 꾀할 것을 기하였던 것이다. … 제국의 학정에 있어서는 일찍부터 국민교육을 종교 밖에 서게 하는 것을 주의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총독은 조선교육령 실시에 즈음하여 관공립학교는 물론, 법령으로써 일반으로 학과과정을 규정한 학교에서는 종교교육을 하거나 또는 의식을 행함을 불허한다는 것을 선명하였다. 이제 시운의 진보에 비추어, 국민 교육의 통일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주요한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에 대하여 그 학과과정을 설정하였으

185) 오천석, 앞의 책, 2014, 252-253쪽.

므로, 이러한 학교에서는 종교과를 두거나 또는 그 의식을 행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적어도 국민교육을 베푸는 학교는 관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또한 이 일정한 교육방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¹⁸⁶⁾

<표 4> 1915년 개정사립학교규칙의 신설규정¹⁸⁷⁾

신설 조항	개정사립학교규칙(1915년 3월 24일, 조선총독부령 제24호)
사립전문학교 설립시 재단법인설치 의무화 (제3조의 2)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는 그 학교의 설립유지에 족한 재산을 가진 재단법인일 것을 요함
교과과정 통제 / 종교교육금지 (제6조의 2)	1.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또는 전문학교가 아니면서 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은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실업학교규칙, 전문학교규칙에 준해 정할 것 2. 前項의 경우 보통학교규칙, 고등보통학교규칙, 여자고등보통학교규칙, 실업학교규칙, 전문학교규칙에 규정한 이외의 교과과정을 가할 수 없음
교원의 자격조건과 國語사용 의무 (제10조의 2)	1. 보통교육, 실업교육 또는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어에 통달하고 해당학교 정도에 응하는 학력자 일 것. 단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별도로 정한 시험에 합격한 자, 교원면허장을 가진 자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학교를 졸업한 자에 한함 2. 오직 외국어, 조선어 및 한문 또는 특별한 종류의 기술을 教授하는 자에 한해 前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부칙-유예규정	1. 本令은 1915년 4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함 2.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사립학교 교원 또는 고등보통교육, 실업교육, 전문교육을 하는 사립학교에서 修身, 국어, 역사, 지리, 체조 이외의 教授를 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1920년 3월 31일까지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3. 本令시행의 현재 인가를 받아 존재하는 사립학교는 1925년 3월 31일까지 제3조의 2, 제6조의 2, 제1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지 않을 수 있음

「사립학교규칙」을 공포하며 총독부는 처음 조선교육령을 세울 때에도 사립학교에 문제가 많았지만, 급격한 변화로 혼란이 생길 수 있어 점진적인 변화를 꾀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시대의 흐름이 바뀌어 총독부에서 정한 규정대로 학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종교계 학교에 관해서는 종교교육을 할 수 없고, 종교의식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사립학교규칙」은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종교계 학교에 정체성 혼란과 존립위기를 일으키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이 신성여학교 폐교에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는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186) 大野謙一, 「조선교육문제 관견」, 조선교육회, 1936, 64-65쪽.

187) 『조선총독부관보』, 1915. 3.

<표4>에서 볼 수 있는 「사립학교규칙」의 변경된 첫 번째 조항은 전문사립학교의 재단법인 설립 문제를 말하고 있다. 이 조항은 전문사립학교로 분류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재단법인을 설립해야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재단법인의 설치 문제는 재정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큰일이었다. 실제, 보성·세브란스·송실·이화 학교 등은 재단 설립의 문제 때문에 전문학교 이름을 버려야만 하였다. 그러나 신성여학교는 전문사립학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재단법인을 설립할 필요는 없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신성여학교의 폐교와는 거리가 있는 조항이다. 다만 당시 일본 당국이 해당하는 종교학교가 많지 않음에도 이러한 조항을 만든 것은 전문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계 학교를 정규 보통학교체제로 편입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설립 장벽을 따로 만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¹⁸⁸⁾

두 번째 조항의 1조를 보면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또는 전문학교가 아니면서 보통교육, 실업교육을 하는 사립학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정규 사립학교 틀에 속한 학교가 아닌, 인가만을 받아 운영하는 ‘사립 각종학교’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립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신성여학교는 새로 신설된 조항에 의거하여 정규 사립학교처럼 각 학교규칙을 따라야했으며, 각 학교규칙에는 종교교육이 금지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종교교육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신성여학교도 다른 종교학교와 마찬가지로 학교 설립의 제일 기본 목적은 선교에 있었다. 선교의 기본인 종교 교리를 교육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 신성여학교 설립 목적 자체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었다. 따라서 신성여학교로서는 학교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할 사항은 「사립학교규칙」의 부칙-유예규정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립학교규칙」 이전에 설립하여 인가받은 학교는 1925년까지 10년 간 해당 규칙에 대해 유예를 인정받았다. 따라서 1916년에 폐교가 된 신성여학교는 폐교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립학교규칙이 유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이 조항에 대해서 천주교 내부에서는 상당한 위기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또 다시 총독부에서 2개의 법령이 나왔는데, 이것들은 우리 사업을 돕기 위해 만들어

188) 안유림, 「일제하 기독교 통제법령과 조선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145-146쪽.

진 것은 아닙니다. 그 중 하나는 모든 종류의 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중립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내에서는 수업 시간 중과 수업 시간 밖에서까지도 종교 교육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학교에 대해서는 이 법령을 실시하기까지 10년의 유예가 주어지고 있으나, 지방 관청에서 즉시 이 법령에 응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 학생들에게 학교를 다니는 기간 중에 종교 교육을 시키려는 목적에서 우리가 막대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학교들 대부분이 조만간에 멸망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¹⁸⁹⁾

비록 이 법이 5년 전에 선포되었을지라도 그 엄격한 시행에는 10년의 유예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5년의 유예 기간을 이용하여 계속 학교에서 경문과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한이 지나면 물론 다른 방도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¹⁹⁰⁾

세 번째 조항은 교원 자격에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를 초래하는 조항이었다. 당시 선교사들과 수녀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배워 학교에서 한국어로 강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대다수의 경우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고 기독교 중등학교를 졸업한 뒤 보통학교에서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교원의 학력 조건 역시 큰 문제였다. 당시 신성여학교에 파견된 샬트르 수녀회 소속 수녀들은 고아와 초등교육에 한하여 교육을 담당하였는데, 일본이 요구하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수녀는 아니었다.¹⁹¹⁾ 따라서 신성여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던 수녀들이 교원자격이 없었기 때문에 수녀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육에서 일선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사립학교규칙」이 아니더라도 이미 교원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신성여학교로서는 큰 타격이 되는 규정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조항 역시 앞의 조항과 마찬가지로 규정상 10년의 유예기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여학교의 폐교와는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립학교규칙」에 나오는 조항들은 이미 인가받아 운영되던 학교에 1925년까지 유예가 주었다. 따라서 1916년에 폐교한 신성여학교 폐교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 조항들은 이후 신성여학교가 재개교를 희망할

189)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127-128쪽.

190) 명동천주교회, 앞의 책, 1984, 156쪽.

191) 김혜선, 「개화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5쪽.

당시에는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제주 일본 관헌 차원의 신성여학교에 대한 방해가 있었다는 점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 관원들은 신성여학교 폐교 이후 학교 건물을 문제 삼았다. 신성여학교 기숙사 건물로 이용되던 향청이 불법적으로 학교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법 점유 교사 양도령’을 내렸다.

여기서 향청 건물은 앞서 라쿠르 신부가 신성여학교를 확장하기 위해 인수했던 옛 좌수가 사용하던 건물이었다. 당시 수녀원 바로 옆 건물인 데다 빈 건물이었기 때문에 라쿠르 신부가 신성여학교 기숙사 설립을 위해 인수하였다. 이 건물은 일본인들이 라쿠르 신부의 소나무 밭에서 전신주목 25그루를 몰래 베어가 버린 사건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었다.¹⁹²⁾ 이 건물은 당시 소나무 사건 담당 순검이 이미 인수를 약속한 바 있었고, 제주 주요 인사들이 집을 얻을 수 있도록 정부에 탄원을 넣기도 하였다. 또한 군수와 일본 책임자가 이러한 요구에 호의적이기도 했던 것 등의 일들로 보아 그 건물은 당시 합법적으로 신성여학교에 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¹⁹³⁾

하지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쿠르 신부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프랑스 군에 차출되어 한국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제주 본당이 경성교구에서 대구교구로 이관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류가 미비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일본이 학교 건물에 대한 교사 양도령을 내리자 담당 신부가 없던 제주의 신성여학교로서는 학교 건물을 지킬 수 없었다.¹⁹⁴⁾ 신성여학교 출신 최정숙도 회고에서 당시 제주 일본 관원들의 정책적 탄압과 학교 건물 몰수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동기는 소위 경영난이란 핑계를 대었지만 프랑스 신부 쿠마셀로가 전주로 전근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던 일본관헌들이 강압을 가한 것이다. 이 때 나는 진명여고보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고 학부형들도 학교의 재건을 꾀하였지만 정책적인 탄압에는 대항할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校舎까지 몰수해 버렸다는 것을 뒤에 들었다.¹⁹⁵⁾

192)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0년 6월 10일, 251쪽.

19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1910년 6월 10일 서한부터 1911년 3월 23일 서한까지 해당 부지 관련 언급이 계속되고 있다.

194)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59-60쪽.

195) 최정숙, 앞의 글, 1969.

그러나 학교 건물은 신성여학교가 휴교하고 사실상 폐교상태일 때, 일본이 교사양도령을 통해 가져간 것으로 폐교의 직접적인 원인은 크게 연관이 없다.

2) 제주 지역의 공소화와 신성여학교 폐교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었던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은 사실상 직접적인 폐교 원인의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실제 신성여학교를 폐교로 몰고 갔던 직접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답은 당시 신성여학교를 운영하던 라쿠르 신부와 당시 제주 천주교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1914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전쟁 당사국이었던 프랑스는 외국에 파견되어 있던 교회에 즉각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시 제주교회를 관할하던 대구 교구의 드망즈 주교는 총동원령을 알리는 영사의 편지를 받고, 프랑스 출신 선교사들에게 동원령을 통고하고 프랑스 영사의 지시를 전달하였다.¹⁹⁶⁾ 당시 한국에서 선교 하던 선교사들은 모두 프랑스 외방전교회 소속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있던 대다수의 프랑스 신부들은 전쟁에 동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프랑스인이었던 라쿠르 신부 역시 제1차 세계대전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파리가 점령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걸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마침내 타케 신부가 구독한 「서울 프레스」의 소식을 듣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여러 선교사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프랑스의 빛나는 승리로써 보상받을 것입니다.¹⁹⁷⁾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를 받게 되실 때는 낡은 1914년은 죽어 땅에 묻혀버릴 것입니다. 그 해는 불멸의 추억을 남겨 놓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 이

196) 동원 대상자들은 서울에서 고베[神戸]를 거쳐 프랑스로 향하기 위해 되도록 빨리 서울에 집합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제주교안 당시 잠시 제주 교회에 왔었던 무세 신부, 드망즈 주교는 소집연기로 돌아오게 되고, 신성여학교 설립에 관여했던 홍로 본당의 타케 신부 역시 조금 늦게 소집이 연기되었다가 이듬해 징집 면제를 받았다(한국교회사연구소, 『드망즈 주교 일기』(1911~1937), 가톨릭신문사, 1987, 107쪽; 뮌텔, 『뮌텔 주교 일기 5 : 1911-191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339쪽).

197) 1914년 9월 5일 독일군은 파리 전방 30마일까지 육박했으나, 러시아의 참전과 프랑스군의 반격으로 실제 파리는 점령되지 않았다. 당시 라쿠르 신부는 일본인이 경영하던 「서울 프레스」라는 총독부의 기관지 역할을 하던 신문을 통해 전쟁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4년 9월 21일, 279쪽).

추억이 프랑스의 승리와 재건의 서광을 상기시키길 원합니다. ... 저는 동원되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쪽에서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은데, 등짐을 진 사제들이 그들의 친구들 마음속에 신앙의 정신을 다시 타오르게 한 것을 보고 저도 그들을 본받고 싶어집니다.¹⁹⁸⁾

라쿠르 신부는 전쟁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프랑스의 승리를 기원하고 있었다. 또 서한을 보면 라쿠르 신부는 “저는 동원되기를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을 남긴 대목이 눈에 띈다. 이 말은 마치 이전에는 동원되기를 바랐던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라쿠르 신부가 전쟁에 동원되기를 바랐다가보다, 먼저 전쟁에 참여한 선교사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의미를 담아했던 말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라쿠르 신부의 진심은 담당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 많았던 제주를 두고 떠나기가 부담스러운 마음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실제 라쿠르 신부는 소집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제주 본당과 함께 공석이 되었던 목포와 계량 본당의 순방을 맡았다. 그러나 이듬해인 1915년 공사 중이던 전주 성당의 신부가 갑자기 선종하면서 라쿠르 신부가 전주로 전임되어 제주를 떠나게 되었다.¹⁹⁹⁾ 신성여학교 설립과 운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라쿠르 신부의 전임은 신성여학교에 큰 타격일 수밖에 없었다.

라쿠르 신부의 후임으로 김양홍 신부가 제주에 부임하였다.

현재 많은 개종을 기대하기란 어렵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여학교를 보존하는데 많이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교는 현재까지 좋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읍내의 외교인들도 거의 모두가 그들의 딸들을 공립학교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학생은 70명으로 거의가 다 외교인이지만 입교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입교를 못하지만 후에 자립하면 많은 이들이 입교할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학교를 보존하도록 지시했습니다.²⁰⁰⁾

198)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4년 12월 29일, 281쪽.

199) 결국 라쿠르 신부는 1916년 전쟁에 동원되어 프랑스로 떠났다. 라쿠르 신부가 다시 한국에 입국한 것은 전쟁이 거의 끝나가던 1918년이였다. 하지만 다시 제주로 돌아오지는 못했다(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54-56쪽).

200)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김양홍 신부’, 1915년 7월 13일, 163쪽.

제주에 부임한 김양홍 신부 역시 제주 선교의 핵심이 신성여학교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김양홍 신부는 부임초부터 신성여학교 운영에 많은 신경을 쏟았다. 그러나 신성여학교의 악재는 그치지 않았다. 제주에 부임한 지 1년 만인 1916년 5월 김양홍 신부는 경상남도 진주 소촌본당으로 전임되었다. 또한 서귀포의 흥로 본당을 맡고 있던 김승연 신부도 전주 본당으로 전임되었다. 두 명의 신부가 제주를 떠난 뒤 뒤를 잇는 본당의 주임 신부가 임명되지 않았다. 대신 목포 산정동 본당의 타케 신부가 1년에 두 차례 제주를 방문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는 곧 제주가 주임 신부가 없는 ‘공소 지역’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한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전쟁에 동원되었고, 자연스레 한국에는 선교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많은 지역의 본당들이 신부가 없어서 공소 지역이 되었고 제주도 그중 하나였던 것이다. 신부가 전적으로 학교 운영을 맡아오던 신성여학교는 운영상의 위기를 맞았고, 이는 신성여학교 폐교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²⁰¹⁾

한편, 제1차 세계대전은 선교사의 부족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에도 큰 타격을 주었다. 프랑스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던 한국 천주교는 세계대전 발발 이후 전교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레 선교사들의 활동이 위축되었다. 그 결과로 천주교에서 운영하던 학교의 재정 역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특히 신성여학교의 경우에는 라쿠르 신부가 그 동안 모아 두었던 자본금 3000엔에 대한 학교 수입금을 목포 산정동 본당과 나눠 쓰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신성여학교에 지원이 약속되었던 돈이 목포학교 설립에 투입되었다.²⁰²⁾ 학교 자본금의 분할 사용과 약속된 후원금마저 중단되자 그동안 여러 후원을 통해 운영되었던 신성여학교는 재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친애하는 샤르즈비프 신부의 고집불통에 따라 사용된 자본금 3,000엔의 학교 수입은 올해 100엔이라는 3%의 이익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충당해야 할 많은 다른 경비를 제외한 것으로서 쉽게 얻은 돈이 아닙니다. 예년에는 6%의 이익을 봅니다.²⁰³⁾

201)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58-59쪽.

202)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55-56쪽.

20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1997. ‘라쿠르 신부’, 1914년 12월 29일, 281쪽.

따라서 3000엔의 자본금으로 운영되던 신성여학교는 6%의 이익을 이어오고 있었지만, 1914년에 들어서 그 절반인 3%로 이익금이 줄어들었던 것이다. 이에 재정운영을 담당하던 라쿠르 신부와 그 후임마저 없는 상황 속에서 신성여학교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1915년 이후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친 신성여학교는 1916년 7월 25일 제3회 졸업생을 끝으로 6년 9개월 만에 자진 휴교를 했고, 마침내 폐교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²⁰⁴⁾

2. 제주인과 천주교의 학교 재개교 노력

1) 신성여학교 출신과 제주인의 재개교 운동

대구 교구 내에서 잘 운영되던 학교 중 하나인 신성여학교가 폐교하자 당시 대구 교구 드망즈 주교는 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이 그 애석함을 표현하였다.

16년 전부터 두 선교사에 의해 복음화 되어 온 제주도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수녀들에 의해 운영되면서 번창했던(신성여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목포의 주임 타케 신부는 두 곳의 사제관이 다시 주인을 맞이하게 될 먼 훗날을 기다리며 1년에 두 번 이 큰 섬의 교우들을 방문하러 갑니다.²⁰⁵⁾

드망즈 주교는 운영상의 문제로 당장 신성여학교 문을 닫지만 이후 다시 열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신성여학교는 처음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교의 재건을 꾀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정책적인 압박에 그 꿈은 좌절되었고, 학교 건물까지 몰수되면서 부흥은 멀어지는 듯 보였다.²⁰⁶⁾

천주교만의 교계제도 또한 학교가 다시 세워지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였다. 천주교의 성직자 중심 교계제도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어서 학교 설립과 같은 중요

204) 당시 재학생은 70여 명이었고, 졸업생은 제1회 6명, 제2회 6명, 제3회 16명이었다.

205) 한국교회사연구소, 앞의 책, 1987, 1917년 내용.

206)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1쪽.

사업은 일반 신자들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 모든 천주교 학교들은 신부가 결정하고 추진한 결과였고, 일반 신자들은 신부들의 결정에 협조하고 따르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와 반대로 개신교에서는 신자 개인이 어디서나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며, 학교 이름 앞에 하나 같이 ‘기독교○○학교’라고 명명하였다.²⁰⁷⁾ 이러한 차이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개신교보다 학교가 세워지기 힘들었다. 신성여학교의 경우에도 천주교 선교사들이 제주를 떠나고 신부가 없는 상황에서 여건이 가능했다라도 신자들 스스로 신성여학교를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신성여학교 출신인들과 제주인들은 신성여학교의 의지를 이어가려 노력하였다.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 최정숙은 3·1운동 이후 두 번의 옥고를 치르고 고향에 돌아와 폐교된 신성여학교를 계승하고, 여성 문맹퇴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대정공립보통학교에 근무하던 강평국과 함께 여수원을 설립하였다. 여수원 설립과정을 최정숙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새벽하늘의 별빛은 누리에게 밝음과 용기와 지혜와 믿음을 못 박아 줄 신성의 재건, 이것은 버리기에 너무나도 귀하고 아까운 신조였었다. 1919년 3·1운동에 연루되어 갇힌 몸이 되었다가 11월 6일 공판을 받고 풀려나온 필자는 더욱 불붙는 민족적 양심과 애타는 교육에의 의욕을 누릴 길 없어 신성여학교와 관립 경성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동창생인 강평국씨와 손을 잡고 어머니의 절대적인 이해와 희생적 후원을 얻어 신성여학교 자리에 여수원이란 이름으로 구 신부님의 뜻과 신성의 얼을 되살리는 첫걸음을 디뎠다. 1919년 12월에서 1920년 3월까지 날마다 가가호호 방문을 하여 학생모집에 나섰던 일이 선하다. 비록 풍족하지 못한 조건인 야간 교육이었지만 모여든 학생 60여명. 그때만 해도 제주보통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은 8, 9명에 불과했다. 필자는 실로 보람을 느꼈다. 필자만이 아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우리 신성의 재건을 목마르게 기다렸었다는 사실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희열을 느꼈다. ‘평생을 두고 내가 이 고장에서 있는 힘을 기울여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결의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반석같이 굳어졌다.²⁰⁸⁾

최정숙과 강평국이 사명감으로 학생을 모아 야학으로 시작한 여수원은 150명으로

207) 전병구, 앞의 논문, 2017, 32쪽.

208)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2쪽 재인용.

늘어나고, 주간에도 초등과정을 개설, 50~60명을 가르쳤다. 이렇게 짧은 기간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 이후 제주 사회의 분위기, 신성여학교의 옛 명성 최정숙, 강평국, 고수선을 중심으로 만든 여자장학회, 부인회 등의 조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²⁰⁹⁾ 위의 최정숙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수원은 ‘신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신성여학교의 뜻을 이어받은 학교이며 신성여학교의 부분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수원이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은 여학교였기 때문에 신성여학교에 다니던 학생들도 그전 학년의 수료를 인정받고 계속 이어서 다닐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신성여학교 동문들이 중심이 되어 재정후원자 및 교육자가 되어 신성여학교의 뜻을 지원해 주었다.



<그림 9> 제1회 졸업생 사진²¹⁰⁾

1919년 말에는 여성에 대한 문맹퇴치운동과 사회계몽 및 부녀에게 필요한 수공등을 지도하기 위해 명신야학소가 개설되었다. 1920년이 되어 여수원과 명신야학소의 통합이 논의되었다. 김응두, 송택훈, 홍순재, 오유일, 김택수, 한상호, 이국빈, 고자환, 박교훈 등의 주도로 학교가 통합되어 정식으로 사립 명신학교가 설립되었다. ²¹¹⁾초대 교장은 김응두가 맡았고 이어 오유일이 2대 교장으로 임명되었다. 교사로는

209)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2쪽.

210) 왼쪽부터 최정숙, 김정규, 송차호, 강평국, 홍태옥(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쪽).

211) 양진건,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 2004, 36쪽.

송택훈, 박교훈, 한상호, 김택주, 고자환 등이 활동했고, 강사로 최정숙, 강평국 두 여수원 교사를 비롯하여 김명식, 이덕빈, 최남식 등이 있었다.²¹²⁾

사립 명신학교는 이도동 소재의 5천여 평에 4개 교실과 1개의 관리실을 갖춘 만큼 규모가 컸다. 이 땅은 송택훈이 무료로 임대 제공한 것으로 교사들도 대부분 무보수로 근무하였다. 학제는 4년제 남녀공학이었으며 1개 학년의 수용 인원은 40명이었다. 과목은 보통학교의 과정과 동일하되 한문이나 조선어, 산술, 지리 등에 주력하였다.²¹³⁾

명신학교의 경영 지원 단체는 ‘제주청년수양회’였다. 청년수양회는 ‘제주흥학회’를 조직하여 명신학교를 경영하게 하였다. 제주흥학회는 명신학교의 경영 외에도 강연회 개최를 통하여 교육계몽운동에 전념하였다. 1921년 7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걸쳐 제주공립보통학교에서 남녀 연합 강연회를 개최하였는데, 청중 1,000여 명이 몰려들어 성황을 이루었다.²¹⁴⁾ 또한 제주흥학회에서는 같은 해 8월 12일에 서울로부터 귀향한 고순흠, 이석형 두 사람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도 700여 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제주도민들의 민족 교육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²¹⁵⁾

명신학교는 이러한 도민들의 교육열과 지역 유지들의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인 토대가 약하였기 때문에 운영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923년 3월부터 지역 유지들이 ‘명신학회’를 만들었으나 곧 유명무실 상태가 되어 버렸다.²¹⁶⁾ 그 뒤 교장 박이혁이 전 책임을 지고 학교 재정을 맡았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교실이 은행에 차압되고 교원의 봉급조차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교원 일동은 11월21일 교장에게 학교 경영에 대한 결의문과 진정서를 제출하고 동맹휴직을 하였다.²¹⁷⁾

이러한 교원들의 움직임이 있기 직전인 1923년 10월 29일에는 4~5학년 학생들이 학교에 대하여 운영 개성에 대한 진정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영향을 받아서 같은 해 11월 28일에 명신학회는 지역 유지 200여 명이 참석한 ‘제주유지자 대회’를 명신학교 내에서 개최하였다.²¹⁸⁾

212)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3쪽.

2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92쪽.

214) 『동아일보』, 「제주남녀연합강연」, 1921년 8월 9일 기사.

215) 『동아일보』, 「제주흥학회강연회」, 1921년 8월 21일 기사.

216) 『동아일보』, 「명신학회의 포부」, 1923년 4월 17일 기사.

217) 『동아일보』, 「제주명신교 비참한 운명」, 1923년 11월 29일 기사.

그러나 명신학회가 부흥된 지 1주일도 안되어 회장 최원순이 회원의 분열, 회비 징수의 불가능 등의 사유로 인책 사면되어 버림으로써 명신학회는 그 기능을 잃어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채무 독촉이 심해지자 결국 지역이 유지 일당은 12월 14일에 명신학교의 유지를 마에다 [前田] 제주도사에게 일임해 버렸다. 이에 마에다 도사는 스스로 명신학교 교장이 되고 기부금을 모집하여 완전한 사립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12월 15일에는 제주공립보통학교 내에서 ‘제주사립학교 창설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16인의 창립위원이 선정되었고, 즉석에서 1천 원의 기부금을 신청받음으로써 1924년 초순부터 개학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마에다 도사는 학교의 존속 유지를 약속했지만 1924년 1월 학교를 해산시켜 버렸다. 그 대신에 일제의 간섭을 받는 갑자의숙을 설립하였다.

갑자의숙은 명신학교의 학생들을 받아들여 교육을 하였고 ‘창립위원회’가 조직되어 사무소를 도청 내에 두어 제반 사무를 보게 되었다. 그러나 갑자의숙은 교원 채용권을 일본인 도사에게 넘겨버림으로써 민족교육을 바랐던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2월 10일에는 4학년 학생 박장호가 익명으로 교원들의 자질을 비판하는 투서를 함으로써 퇴학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게다가 갑자의숙은 명신학교에서는 월 50전이던 학비를 1원으로 올려 받음으로써 가난한 도민들에게 부담을 주었다. 1924년 2월 17일 당시 전체 학생 217명 가운데 납부 기한인 15일까지 학비를 납부한 학생은 30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학교 측은 학비 미납자들에게 정학 처분을 내림으로써 학부모들의 심한 원성을 샀다. 갑자의숙도 일본의 심한 간섭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로 결국 1924년 문을 닫았고, 학생들은 제주공립보통학교로 흡수되어 일본의 관제 교육체제에 편입되어 버렸다. 이로써 신성여학교 출신인들과 제주인들의 신성여학교 재개교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²¹⁹⁾

신성여학교의 부활을 위해 여수원을 열고 명신야학소와 통합하여 명신학교로 발전시키는데 음양으로 역할을 했던 최정숙은 갑자의숙마저 폐교되는 모습을 보며 “지금도 아쉽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불타는 향학열을 북돋워 주고 뒤 밀어주실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재벌가들의 노골적인 외면이다”²²⁰⁾라며 재정적

218) 『동아일보』, 「명신학회 부흥」, 1923년 12월 5일 기사.

2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의 책, 2011, 92-94쪽.

지원의 부족을 신성여학교 재개교 불발의 원인으로 보았다.

2) 천주교의 신성여학교 재개교 노력

신성여학교 부흥을 바랐던 것은 신성여학교 출신인과 제주인들만은 아니었다. 신성여학교 설립의 주체였던 천주교 측에서도 신성여학교 다시 열리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공소지역이었던 제주에는 1922년 9월 24일에는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교수로 전임된 타케 신부의 뒤를 이어 함양 본당에 재임하던 주재용 신부가 목포 산정동 본당 겸 제주 본당의 제4대 주임으로 임명되었다. 동시에 이경만 새 신부가 주재용 신부의 보좌로서 나주의 계량 본당 주임 겸 제5대 홍로 본당 주임에 임명되었다. 그 결과 제주 교회는 약 6년 4개월간의 전담 신부가 없는 ‘공소 시기’를 지나 육지부와 제주를 동시에 겸하는 ‘겸임 신부 시기’를 맞게 되었다. 1922년 9월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제주도 담당 신부로 임명된 이경만 신부는 제주에서 4개월을 머무르기로 되어 있었다.

이 지방 교우들은 순박하지만 구령에 요긴한 교리를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주교님의 명령으로 올해만은 라쿠르 신부님의 지도하에 주 바오로 신부와 같이 제주도에서 4개월을 보내기로 되어 있습니다.²²¹⁾

이경만 신부는 제주 홍로 본당으로 전임하기 전에 라쿠르 신부의 지도를 받았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성여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²²²⁾ 신성여학교를 통해 제주에 근대교육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선교하려 했던 라쿠르 신부였기 때문에 제주에 처음 부임하는 신부에게 신성여학교 필요성을 언급했을 것이

220)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3쪽.

221)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이경만 신부’, 1922년 10월 6일, 165쪽.

222) 1929년 8월 11일 제주 본당 제2대 주임으로 15년 동안 제주 지역에서 활동하며 제주교안을 겪으면서도 특히 신성여학교를 통한 교육 선교활동에 열정적이었던 라쿠르 신부가 선종하게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제주를 떠나게 된 라쿠르 신부는 1918년이 되어야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1925년에는 폐결핵을 앓아 치료차 홍콩에 갔다가 완치되지 못한 채 한국에 다시 돌아왔다. 그는 오자마자 목포 소화학원 교사로 근무하는 최정숙을 전주 본당으로 불러들여 성당 구내에 해성 강습소를 열고 어린이들과 교중 처녀들에게 교리와 학문을 가르치게 하였다. 다음해인 1927년에는 최정숙을 중심으로 해성 소년회를 창립케하고, 그 해 창립된 자모회의 지원을 받아 교리 연구, 토론, 강연, 성극 등을 하는 등 교육을 통한 전교활동의 끈을 놓지 않았다. 결국 라쿠르 신부는 폐결핵이 악화되어 선종하였다(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6쪽).

다. 이렇게 제주에 온 이경만 신부의 서한에서 신성여학교의 재개교 의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 고장 주민들은 거의 무식합니다. 그러나 어떤 외교인들은 비록 실천은 하지 않을 지라도 우리 종교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적어도 여학교를 통해서 이 지방을 개화하는 것, 이것이 특히 저를 매우 자극합니다.²²³⁾

이경만 신부는 제주에 여학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고, 여학교가 제주 천주교를 이끌어갔던 중요한 사업임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1922년 9월 제주에 부임한 주재용 신부와 이경만 신부 그리고 함께한 라쿠르 신부가 제주에 왔을 때, 신성여학교 동창생 30여 명으로 환영을 받기도 하였다.²²⁴⁾ 이로써 제주에 다시 신성여학교가 운영될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지만, 여학교가 다시 열리는 길은 쉽지 않았다. 여학교를 운영하고자 했던 이경만 신부는 나주 계량과 홍로 본당을 오가며 사목하던 중, 1923년 4월에 병 때문에 대구에서 치료를 받다가 5월 1일 사망하게 되었다. 학교 재개교의 의지를 보인지 1년이 안된 시점에 신부가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신성여학교 재개교는 묘연해지고 말았다.

대구 교구 드망즈 주교는 죽은 이경만 신부를 대신하여 1923년 5월 26일에 서품된 이필경 새 신부를 5월 27일 계량 본당 주임 겸 제6대 홍로 본당 주임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1926년 5월 31일부로 제주 본당 제5대 주임 신부로 임명하고 홍로 지역의 사목까지 담당하게 하였다.²²⁵⁾ 이로써 제주에는 신부가 없던 ‘공소 시기’와 육지 본당과 제주 본당을 겸임하는 ‘겸임 신부 시기’를 지나 10여 년 만에 완전한 본당으로 다시 설 수 있었다.²²⁶⁾

드망즈 주교는 신성여학교의 성공적 운영 등으로 제주에 거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제주 본당의 전담 신부를 다시 임명한 것이었다. 또한 1926년 5월 29일에 서품된 최덕홍 새 신부를 보좌 신부로 임명하면서 제주 선교에 힘을 더 보탤 것이다. 그렇게

223) 천주교 제주교구, 앞의 책, ‘이경만 신부’, 1922년 12월 26일, 167쪽.

224)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4쪽.

225) 1926년에 들어서 다시 제주가 상주 신부가 있는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1926년 대구 교구에서만 11명의 새 한국인 성직자가 탄생하여 신부 수급에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이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의 신부가 부족했던 시기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만에 벗어나게 됨으로 가능했다.

226)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4쪽.

제주에 부임한 이필경 주임신부와 최덕홍 보좌신부는 야학운동, 성극 공연, 소년·소녀회 같은 심신단체의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선교 활동을 펼쳤다. 이 중 야학운동은 ‘신성’이라는 이름은 없었지만, 신성여학교 야간반의 일부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또한 이 야학운동은 해방 이후까지 이어져 야간 1학급으로 시작한 신성여자중학원 탄생의 가교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²²⁷⁾

두 신부의 노력으로 제주에는 담당 신부가 없던 1926년 183명의 신자 수가 1년 후에는 340명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신자 수가 늘어나자 드망주 주교는 1927년 5월 최덕홍 신부를 홍로 본당의 제7대 주임으로 임명하였는데, 최 신부는 부임 즉시 40여 명의 아동들을 모아 저녁에 직접 글을 가르침으로써 문맹 퇴치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도 하였다. 이는 3·1운동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서 불어온 일종의 야학운동으로 제주 본당의 야학운동이 홍로 본당으로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²²⁸⁾ 최정숙은 회고에서 이러한 야학 활동을 통해 천주교 측에서도 교육의 끈을 놓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더욱이 야간 강습소는 해방 직전까지 계속돼, 문맹퇴치 및 교양인으로서의 육성에 이바지했음은 큰 보람이 아닐 수 없다.²²⁹⁾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결정적으로 신성여학교가 재개교하지 못하고 야학 활동으로만 유지되었던 이유는 일본이 제정한 「사립학교규칙」의 원인이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신성여학교 폐교 당시에는 「사립학교규칙」의 유예규정으로 직접적인 폐교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제주가 공소지역에서 벗어나 학교를 재개교 하려고 했을 때는 유예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시기였다.²³⁰⁾ 따라서 천주교 측에서 재개교를 희망해도 실제 재개교로 이어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1931년 5월 전라도에 새로 감독 대리구가 생겼고, 라쿠르 신부의 뒤를 이어 신성여학교를 이끌었던 김양홍 신부가 제주를 관할하는 전라도 초대 감독 대리

227)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4쪽.

228)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2009, 64-65쪽.

229) 최정숙, 앞의 글, 1969.

230) 1915년 개정된 「사립학교규칙」에는 10년의 유예규정이 있었다. 따라서 유예규정이 해제되는 1925년 이후로는 모든 학교가 「사립학교규칙」을 따라야 했다.

임명되었다. 따라서 신성여학교가 다시 열릴 수 있다는 기대도 있었다. 그러나 전라도 감목 대리구가 설정된 이후 최정숙과 같은 민족교육 시행을 포용하는 한국인 신부들과 오롯이 전교만을 하려는 프랑스 신부들과의 갈등이 나타나 무산되었다. 또한 1933년에는 제주 본당이 김양홍 신부가 관할하는 전주교구에서 독립하여 성 골롬반 외방선교회가 사목을 담당하는 광주교구 소속이 되었다. 1936년 6월에는 제주 전역은 파리 외방선교회에서 골롬반회 선교사²³¹⁾들에게 완전히 이양되게 되었다.²³²⁾ 시간이 흘러 마침내 광복 이후 신성여학교는 폐교 30여 년 만에 제주인들과 선교사들이 의해 '신성'이라는 이름을 이어받은 신성여자중학원 재개교할 수 있었다.

231) 골롬반회 선교사 스위니 신부와 도슨 신부는 해방 후에 각각 신성여자중학원 초대, 2대 학원장이 되고 도슨 신부와 라이언 신부인 경우는 신성여자초급중학교로 승인된 이후에는 이사장 대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67-68쪽).

232) 신성학원총동문회, 앞의 책, 68쪽.

V. 결론

본 연구는 제주 최초의 여학교로서 제주 근대교육을 이끌었던 신성여학교의 위상이 기존 연구를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부족한 점으로 지적했던 제주도 여학교 존재 여부,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 학교 재정 운영, 학교 폐교 원인 등을 중심으로 제주 천주교의 근대교육과 신성여학교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였다. 본고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I 장에서는 천주교의 근대교육활동과 신성여학교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 근대학교 설립운동의 흐름과 각 학교의 설립배경을 중심으로 먼저 살펴보았다. 제주에는 학교설립운동의 흐름에 따라 공립학교, 사립학교, 종교학교 등 세 종류의 학교가 설립되었다. 공립학교는 정부 소속 관리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설립한 학교로 「보통학교령」에 근거하여 제주의 초등교육을 위해 설립된 제주공립보통학교가 있었고, 「농림학교규칙」에 근거하여 제주의 농업과 중등실업교육을 위해 설립된 공립제주농림학교가 있었다. 사립학교 중 공립형 사립학교는 정부 소속 관리가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한 학교로 제주 군수 윤원구가 설립한 의신학교, 정의 군수 장용견이 설립한 의명학교, 대정 군수 김종하가 설립한 한일학교가 있었다. 일반 사립학교는 제주 지식인이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설립한 학교로 한석봉이 조천에 설립한 의흥학교, 이재교가 대정에 설립한 개성학교, 제주 유림들이 향교 부속으로 설립한 대동보통학교가 있었다.

한편, 제주 근대학교 설립운동의 한 갈래였던 천주교의 교육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전래 과정과 성영회 고아원 문제를 먼저 살펴보았다. 제주 선교 초기 악의적인 의도로 천주교에 입교한 자들과 제주도민이 사이에 갈등이 생겨 제주교안이 발생하였다. 제주교안 결과 수많은 천주교인이 죽었고, 천주교 측에서는 사건의 처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 과정에서 선교사에 의해 ‘제주도 여학교’가 설립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주도 여학교가 운영되었다는 주장은 번역 해석의 문제나 앞뒤 맥락에 비추어 볼 때 맞지 않고, 제주 천주교에서 운영한 기관은 성영회 소속 고아원임을 확인하였다.

Ⅲ장에서는 제주교안 이후 제주 천주교를 이끌던 라쿠르 신부는 선교방식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새로운 선교정책의 하나로 교육을 고민했던 라쿠르 신부는 제주의 학교설립운동 흐름 그리고 개신교에서 학교를 설립하려 했던 움직임 등을 통해 자극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당시 천주교 내부에서도 학교설립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라쿠르 신부는 학교의 설립을 결심했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성여학교 설립 이후 운영을 재정 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라쿠르 신부는 신성여학교 설립 초기부터 학교운영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양의 자본금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라쿠르 신부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교 자본금을 확보했을 것으로 보았다. 먼저 천주교 소속 해외 단체의 지원이 있었다. 라쿠르 신부의 서한을 통해 선교회, 예수회, 전교회 등 천주교 소속 해외 단체들을 통해 지원금을 받은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또한 라쿠르 신부가 이들 단체에 직접 지원금을 요구하는 서한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학교 자본금의 상당 부분이 해외 지원금으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제주도 내부적인 자본금 확보 방안도 있었다. 천주교에서는 본당에서나 공소지역에서 신자들에게 헌금을 받아 교회 운영자금으로 활용하였는데, 당시 신성여학교는 제주 천주교의 중요 사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자금들이 학교 자본금으로 충당되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은 자본금으로 학교설립 5년 차인 1914년까지 6%의 이익금을 낼 정도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신성여학교 설립과 운영에 사용된 지출도 살펴보았다. 당시 천주교 신자들은 오랜 박해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교안 이후 상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신자들을 상대로 학교 운영비를 거두기 어려웠다. 따라서 신성여학교의 지출은 설립자인 라쿠르 신부가 전적으로 담당했다. 라쿠르 신부는 신성여학교 설립과정에서 학교건물 매입과 보수·확장에 돈을 투자하여 교실건물, 수녀원, 기숙사 등의 학교 시설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 학교 교육용품 구입 또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가장 지출이 큰 부분 중 하나인 인건비 문제도 있었다. 인건비에는 학생 한 명당 들어가는 학교 운영비와 교사에게 지급하는 교사 월급이 있었고,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했을 것으로 보았다.

신성여학교의 운영 성격과 구성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교 출신자들의 회고

록과 남아있는 사진, 또 천주교의 교육관을 통해서 신성여학교가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이 중심이 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신성여학교의 성격 중 하나는 여성교육이 있었다. 제주의 여성을 비롯한 당시 한국 여성들은 교육에서 소외된 삶을 살았다. 이러한 여성을 위해 신성여학교는 생계교육을 비롯한 근대교육을 제주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신성여학교의 교육내용은 학교 성격에 맞게 유아 및 초등과 여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말 천주교 여학교에서 실시한 교육 내용으로 추정하면 천주교 입교를 위한 교리 교육과 함께 국문, 한문, 산술, 역사, 지리 등 근대 학문과 바느질, 청소, 세탁, 육아법, 자수, 직물 등 생계 교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기초적인 교육내용에 더해 음악수업 봉제수업 등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리고 정식 수업은 아니었지만, 라쿠르 신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종 채소와 식물들을 기르는 방법 및 요리법 등 근대지식의 가르침을 주기도 하였다.

교사로는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에서 파견된 김아나타시아 수녀와 이곤자 수녀가 부임하였다. 수녀들은 바오로 수녀회에서 초등교육을 담당하기 위해 교육을 받은 수녀들이었다. 수녀는 당시 여성 교육만이 아니라 성영회 입장에서도 신성여학교의 큰 도움이 되는 교사들이었다. 이외에도 꾸준하지는 않지만 3명에서 1명 정도의 남교사들도 교사로 채용되어 가르쳤다. 신성여학교의 학생의 경우 초기에는 성영회 고아원 출신의 신자의 자제들과 외교인들로 구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성여학교에서 운영되는 기숙사 덕분에 먼 곳에 살았던 학생들이 찾아와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IV장에서는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을 재검토하고 신성여학교 폐교 이후 신성여학교를 재개교하려고 했던 노력을 살펴보았다.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을 선행 연구들은 일본의 정치적 탄압에서 찾았다. 그러나 일본의 탄압의 주된 근거인 「사립학교규칙」은 10년의 유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성여학교에 직접적인 폐교 원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성여학교 폐교의 실질적 원인은 신성여학교를 운영했던 선교사와 천주교의 당시 상황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여 프랑스 선교사들은 전쟁에 차출되었는데, 라쿠르 신부도 이 영향으로 이전 명령을 받고 옮겨 갔다. 이후 제주 본당이 신부가 없는 공소 지역이 되자 학교를 관리할 사람이 없어졌고, 재정 운용의 부담이 생기자 자연스럽게 폐교

의 길을 걸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신성여학교 폐교 이후 재개교 노력은 신성여학교 출신인과 제주인의 그리고 천주교의 차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본교 출신인 최정숙과 강평국이 만든 여수원을 시작으로 여수원과 합쳐진 명신학교, 갑자의숙에 걸쳐 신성여학교의 뜻을 잇는 노력이 이어졌다. 한편, 천주교에서는 1926년에 들어서야 제주가 공소 지역에서 벗어나 신부를 두게 되었고, 그 신부들이 학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이미 재정 문제와 당시 일본의 법령에 의해 재개교는 힘들었고, 야학 운영을 바탕으로 명맥을 이어갔다. 이러한 여러 노력의 결과로 신성여학교는 해방이후 다시 신성이라는 이름으로 학교를 이어나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혀낸 근대 천주교 교육과 신성여학교의 의미를 확인해보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먼저 이번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신성여학교의 가치 중 하나는 제주에 새로운 교육문화를 전파하고 이끌었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를 통해서 신성여학교가 제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써 제주 여성의 교육을 담당했고, 그 영향을 받은 신성여학교 출신인들이 근대 제주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그러나 신성여학교가 제주 근대교육 안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 뿐만이 아니다. 제주 천주교에서는 신성여학교 설립 이전에 이미 성영회를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고아를 돌보는 보육활동부터 신성여학교 교육활동까지 돈이 없는 학생들도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빈민교육 그리고 여성교육 등이 이루어졌다. 이 시기 이미 근대교육을 통해 이전보다 많은 사람에게 교육의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고아, 빈민,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교육에 참여시킴으로써 근대교육의 핵심인 진정한 의미의 보통교육을 한발 더 나아가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을 더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선행 연구에서 신성여학교의 설립배경으로 주목한 것은 개신교와의 경쟁적인 구도 및 여성교육의 의지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제주 천주교사에서 가장 큰 비극 중 하나인 제주교안의 결과가 오히려 신성여학교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학교설립운동, 개신교와의 경쟁 구도, 천주교 내부의 학교설립 의지 등의 복합적인 원인이 라쿠르 신부를 자극하여 학교설립을 결심하게

꿈 만든 점도 확인하였다. 이처럼 설립배경이 좀 더 명확해짐으로서 학교의 설립목적까지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성여학교의 재정 운용도 눈여겨볼 점이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그리고 폐교까지 사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재정문제이다. 그러나 신성여학교의 경우 재정에 관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아있지 않아서 그동안 학교 운영 상황을 알기 어려웠고, 학교의 설립과 폐교 역시 추정으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신성여학교 재정 전반을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더라도, 학교에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신성여학교의 재정을 유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추가 자료 발견으로 재정운영의 실체가 더 밝혀져야 하겠지만, 신성여학교를 비롯한 당시 학교들의 재정을 유추하는 방법의 하나로 이용될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신성여학교의 폐교에 관한 편견을 바로잡는 과정이 있었다. 기존 신성여학교의 폐교 원인은 일본의 정책적 탄압이 불러왔던 것으로 굳어져 왔다. 이러한 결론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편견으로 자리 잡아 실체를 어둡게 만든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신성여학교 폐교에 일본의 영향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존에 알고 있던 것처럼 신성여학교 폐교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신성여학교 폐교의 실질적 원인은 당시 신성여학교를 운영하던 제주 천주교의 공소화가 가져온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신성여학교 폐교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봄으로써 비슷한 시기 사라졌던 학교들의 폐교 원인을 재고해보는 계기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신성여학교가 본래 가지고 있던 위상에 가려져 보지 못했던 오류나 새롭게 발견한 사실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이를 발판삼아 아직 완벽하지 않은 신성여학교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당시 근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근대교육의 시대상을 그리는 데, 일부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사료

명동천주교회,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1집 서울교구연보(Ⅰ)』(1878-1903),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_____, 『명동천주교회 200년사 자료집 제1집 서울교구연보(Ⅱ)』(1904~1938),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뫼텔, 『뫼텔 주교 일기 1 : 1890-189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_____, 『뫼텔 주교 일기 2 : 1896-190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_____, 『뫼텔 주교 일기 4 : 1906-1910』,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_____, 『뫼텔 주교 일기 5 : 1911-1915』, 한국교회사연구소, 1993.

제주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위원회,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1집』, 천주교제주교구, 1997.

_____,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2집』, 천주교제주교구, 1997.

_____,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3집』, 천주교제주교구, 1997.

_____, 『제주 복음 전래 100년사 자료집 제4집』, 천주교제주교구, 1997.

한국교회사연구소, 『드망즈 주교 일기』(1911~1937), 가톨릭신문사, 1987.

천주교 부산교구, 『교구연보 1878~1940』, 부산교구사 편찬위원회 編; 교회사연구소, 1984.

大野謙一, 「조선교육문제 관견」, 조선교육회, 1936.

2. 신문 및 기관지 자료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제남신문』
 『제주신문』
 『조선총독부관보』
 『천주교회보』
 『황성신문』
 『조선총독부관보』

3. 저서

김찬흡, 『20세기 제주인명사전』, 제주문화원, 2000.
 박종근 외, 『갑신갑오기의 근대 변혁과 민족운동』 (한국 근대사화의 형성과 전개2), 청아출판사, 1983.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편찬위원회, 『한국 샬트르 성바오로 수녀회 100년사』,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1991.
 서영희,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신성학원총동문회, 『사진으로 본 신성100년』, 시민당인쇄사, 2009.
 _____, 『신성백년사』, 시민당인쇄사, 2009.
 안기성, 『한국근대교육법제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4.
 양진건, 『제주도교육행정사』, 제주문화, 1991.
 오천석, 『한국신교육사』, 교육과학사, 2014.
 유흥렬, 『한국천주교회사』, 가톨릭출판사, 1962.
 이종홍 역, 『안세화 주교 공문집』, 천주교 대교구, 2003.
 장신호 옮김, 『쓰촨 대목구 시노드』, 한국교회사연구소, 2012.
 제주대정초등학교총동문회, 『대정교100년사(上)(下)』, 2009.
 제주도교육연구원, 『제주교육통사』, 1974.
 _____, 『제주교육사』, 1979.
 제주도교육청, 『제주교육사』, 1999.
 _____, 『제주교육행정발전사』, 1991.
 제주북초등학교총동문회, 『제주북초등학교 100년사』, 200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근·현대 제주교육 100년사』, 2011.

표선초등학교총동문회, 『표선교100년사』, 2010.

4. 연구논문

김상기, 「한말 사립학교의 교육이념과 교육구국운동」, 『청계사학』 1, 한국정신문화연구원청계사학회, 1984.

노길명, 「박해기·개화기의 한국천주교회와 사회개발」, 『한국천주교창설백주년기념 한국교회사논문집 I』, 한국교회사연구소, 1984.

_____, 조선 후기 가톨릭 아동복지사업의 전개와 성격, 『한국영유아보육학』 28,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02.

박정환, 「초기 제주도 개신교 형성사」, 『한국기독교와 역사』 3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13.

박찬식, 「한말 제주지역의 천주교회와 ‘제주교안」」, 『한국 근현대사 연구』 4, 한국근현대사학회, 1996.

_____, 「한말 천주교와 토착문화의 갈등-1901년 제주교안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사연구』 2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01.

방상근, 「한말 천주교와 제주교안」, 『교회사연구』 17, 한국교회사연구소, 2001.

안영후, 「개화기 천주교의 제주도(濟州島) 신교육운동 考」, 『한국교육논단』 제 10권 제 2호, 아시아태평양교육학회(한국교육포럼), 2011.

양진건, 「개화기 제주도 교육사 연구」, 『제주도사연구』 4, 1995.

_____, 「일제하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 2004.

_____, 「제주도 최초 근대여학교, 신성여학교 연구」, 『탐라문화』 제 18호, 탐라문화연구소, 1997.

_____, 「제주도 학교설립운동」, 『탐라문화』 24, 탐라문화연구소, 2004.

오승환 외, 「근대적 아동복지사업의 도입과 전개에 관한 연구」, 『동광』 111, 2016.

이성은 외, 「소학교령기(1895-1905) 관·공립소학교교육의 성격에 대한 고찰」, 『초등교육연구』 17집 1호, 2004.

황치현, 「왕립 본당의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 『교회사학』 9, 수원교회사연구소, 2012.

5. 학위논문

- 김혜선, 「개화기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의 교육활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김효정, 「한말 민립 사범학교의 설립과 교육구국운동」,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박상길, 「근대 한국의 기독교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신소연, 「일제강점기 김문준의 사회운동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안유림, 「일제하 기독교 통제법령과 조선기독교」,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양철호, 「天主教의 傳來가 濟州 近代 女性教育에 미친 影響」,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병훈, 「프랑스 파리의방전교회가 한국 근대교육기관의 발전에 미친 영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이계형, 「대한제국기 통감부의 식민교육정책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병구, 「전라북도 천주교의 근대 초등교육 연구」,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허경, 「개화기 초등학교 설립현황 및 교육실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